

2014 제주문화예술정책포럼

일 시 : 2014.11.17.(월) 14:00~18:00

장 소 :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진행순서

시간	주요내용	발제·토론자	좌장
13:50~14:00	등록		
14:00~14:05	개회		
14:05~14:10	이사장 인사말	현승환 (재단 이사장)	
1부 14:10~15:00	주제발표 문화구촌·문화이주의 배경과 흐름	이광준 (바람부는연구소장)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례발표 1. 제주도의 기획자로 살아가다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2. 나의 직업은?	배호정 (미디어작가)	
	3. 제주에서의 미래를 꿈꾸다	박동필 (IRUMME 컨설팅 대표)	
15:00~15:30	토론	백용성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 대표) 김동현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15:30~15:40	휴식		
2부 15:40~16:40	사례발표 1. 평화와 예술, 인천의 섬들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조선희 (재단 기획팀장)
	2. 도시와 문화정책의 파트너십, 싱가포르	이정민 (도시계획박사)	
	주제발표 제주, 마을미술에서 세계 예술삼까지	김해곤 (섬아트문화연구소장)	
16:40~17:30	토론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 이정희 (문화기획자, 꽃삽컴퍼니 대표)	
17:30~18:00	종합토론		
18:00	폐회		

1부

문화이주자와 共生을 꿈꾸다

주제발표	문화이주·문화이주의 배경과 흐름	이광준 (바람부는연구소장)	7
사례발표	1. 제주도의 기획자로 살아가다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23
	2. 나의 직업은?	배효정 (미디어작가)	31
	3. 제주에서의 미래를 꿈꾸다	박동필 (IRUMME 컨설팅 대표)	39
토론		백용성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 대표)	45
		김동현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49

주제발표 1

문화귀촌·문화이주의
배경과 흐름

이광준(바람부는연구소장)

문화귀촌·문화이주의

배경과 흐름

이광준 1)

1. 귀농귀촌의 역사와 흐름

대도시에서 소도시나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의 목적은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농과 목장을 꿈꾸며 귀농하는 경우, 노년의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경우, 유기농업이나 생태농업의 신념을 실천하는 경우, 인간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경우 등이다. 귀농귀촌은 산업화 및 도시화 정책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지역 소도시나 농산어촌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도시로 도시로 이동했고 그 역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50년 전 구로공단¹⁾이 서울에 조성되고, 청계천 주변, 창신동, 문래동, 독산동 등지에 작은 공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했다. 또한 구미, 창원, 울산, 여수 등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농민에서 산업일꾼으로 노동 형태를 바꾸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흥 도시로 이주해 갔다. 그 후로 30년쯤이 지나면서 산업화 시기에 도시로 도시로 이주한 중장년층의 일부가 다시 고향으로, 지역으로, 농산어촌으로 이주를 결심하기 시작한다. 스무 살에 도시로 이주해 직장을 갖고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퇴직을 서서히 준비하는 때인 50~60대가 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때부터 귀농귀촌이란 말이 사회적으로 등장하고 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노스텔지어인 농업을 시작하거나 제 2의 인생을 농업에서 시작하려는 중장년 층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U턴(농촌

1)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예술과 지역의 관계를 탐구하는 커뮤니티 바람부는 연구소 대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로 공간재생사업 컨설팅단 단장, 서울시 신시장 컨설팅단 비상임 단장, 제주지역 문화컨설팅 책임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운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에서 살다가 서울로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경우), J턴(농촌에서 살다가 서울로 학업과 직장을 위해서 올라왔다가 태어난 곳과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는 경우), I턴(도시에서 태어나 살다가 농촌으로 내려가는 경우)으로 구분되는 귀농귀촌 유형 중 U턴이 대세를 이루고 J턴이 보충을 한다.

20세기 중반 한국에서 도시화와 산업화와 농업혁명의 에너지원은 '석유'로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석유 부산물과 화학약품으로 구성된 화학농법이나 음식물 화학 첨가제의 인체 피해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유기농업은 80~90년대 이후 소수에 의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후로 환경운동의 갈래로 자연농법, 유기농법 등 다양한 형태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유기농을 지향하는 귀농의 흐름이 나타난다. 1996년 12월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출범하고 이를 통해 유기농 귀농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꿈으로만 지니고 있던 귀농을 준비하고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는 여기에 불을 당기게 된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은 전 사회적으로 금융/재정 긴축과 더불어 대규모 구조조정을 만들고,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유연 생산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해고자와 퇴사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바쳤던 회사가 나머지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50~60대가 소도시와 농산촌으로 U턴이나 J턴을 결심하게 된다.

그 후로 10년이 지난 2007년은 귀농귀촌의 중요한 흐름을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는 해이다. 미국의 월가에서 촉발된 전 세계 금융위기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대출을 통해서 주식과 아파트와 토지에 투자해서 부를 늘려가던 중장년층 부동산 불패 신화의 붕괴를 가져왔다. 성장의 둔화, 불평등 구조의 심화, 전반적인 고용불안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의 확장이 둔화되었다. 그래서 대규모 토목 개발 사업들로 유지하려 했지만 양질의 직장 창출이 되지 않아 고용은 줄어들고, 그 결과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상황을 야기했다. 또한 속도와 성장을 위해서 안전이나 휴식을 인정하지 않는 산업구조에서 건강을 잃은 50~60대, 조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일찌감치 귀농귀촌을 결심한 30~40대와 더불어 이제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1등이 되기 위해 사다리 타고 오르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된 20~30대 청년들이 귀촌과 이주를 결심한다. 특히 20~30대는

앞 세대의 이념인 도시화와 산업화와 정보화를 통해서 만든 세상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저당하고 사는 것, 집을 사기 위해서 30년을 저당 잡히고 살았던 조부모와 부모의 현재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과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20~40대들이 본격적으로 도시적 삶과는 다른,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삶, 삶의 규모를 줄이고 (downshift)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해 문화귀촌이나 문화이주를 실행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도시에서 태어나 죽 도시에서 살아왔던 청년들은 연고지도 없는 시골로 I턴 하고, 경제력이 필요한 40~50대는 귀농, 문화귀촌, 문화이주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J턴이나 U턴을 하는 흐름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청년귀농, 문화귀촌, 문화이주의 흐름이 크게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생산 방식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 1> 제주시 선흘리 소재 '카페 세바' 모습



2. 문화귀촌·문화이주의 특징

근현대의 이주 또는 이민은 노동이주, 경제이주, 전쟁이주(난민)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형성기 이주, 남미에서 북미로의 이주,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의 이주, 유럽의 다문화화 이주, 제주도에서 일본으로의 노동이주, 전남에서 제주로의 노동이주가 그러하다. 대부분의 이주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다. '감자 potato' 기근은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사람들

을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하였고, 70~80년대 전쟁 후의 가난은 한국의 간호사나 광부를 독일로, 청년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과 캐나다로 이민하게 만들었다. 최근 10년 간의 귀농귀촌이나 문화귀촌/문화이주는 경제적·정치적 이유에서 실행했던 이전의 귀농귀촌/이주와는 많이 다르다. 유사한 경향은 60년대 후반 70년대 유럽 환경운동 차원의 시골로의 이주나 미국 반전운동과 히피즘의 실천으로서의 이주, 90년대 일본 대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2000년대 중반 영국의 전환마을(transition town) 운동에서 나타나는 이주와 맥을 같이한다.

한국의 80~90년대 귀농귀촌이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나타나는 귀촌/이주의 흐름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자본주의의 꽃인 금융자본주의의 허상을 직면하게 된 이후의 흐름이라는 점이다. 또한 근대적인 산업화 방식의 한계, 속도 경쟁의 한계와 피로감, 생산력만 증대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거부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즉 GNP가 아니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는 것이다. 대도시에서는 지금도 텃밭하나 없는 상자집(작은 집)에 몸을 맞춰서 살아야 하고, 산과 바다로 가려면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달려야 하고, 주말에 인근 야산이나 한강에 나들이 가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나온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쳐 지치게 되는 현실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다. 특히 과밀 도시화의 문제를 안고 대도시의 발전이 계속되면서 공간의 답답함에 지칠 대로 지친 영혼들이 지역 소도시나 농산어촌으로의 이주를 선택한다. 대도시에서 사느냐? 소도시와 농산어촌이냐?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된 것이다. 적정 규모의 도시, 적정 규모의 노동, 적정 규모의 기술로 이루어진 삶을 희망하는 것이다.

농산어촌에서 도시로 갔다가 다시 농산어촌으로 돌아가 농업, 임업, 수산업을 재발견하거나 소도시나 시골에서 교사나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을 귀농귀촌이라고 한다면 '문화귀촌'은 직접적인 생산 경제와는 다른 교육, 문화예술, 환경 등 문화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 귀촌이다. '문화이주'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문화영역을 이동해서 일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화귀촌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대도시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종사하다가 농산어촌으로 가서 문화적 영역(문화예술, 교육, 환경 등)에서 일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주하여 직접적으로 문화적 영역의 일이나 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

한다. 전국적으로 2010년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질을 위한 이주의 측면과 더불어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문화귀촌/문화이주의 흐름이다. 문화귀촌/문화이주에서는 점점 더 연령대가 낮아져서 30~40대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20~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문화귀촌/문화이주 중 어떤 낱말을 용어로 써야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귀촌과 이주 현상에 적절한 용어로는 문화이주가 더 적합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제주 이주자들은 해안이나 중산간의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제주시/서귀포시의 원도심이나 주변부 문화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이주하기 때문에 귀촌보다는 이주에 중심으로 두고 있어 문화이주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다.

문화귀촌/문화이주 현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산업사회의 생산구조가 만든 도시 시스템의 편리성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후기 산업사회의 소비 구조인 과잉관광화와 과잉개발로 지역의 생산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즉, 생산 양식에 대한 성찰에서 귀농 귀촌이나 문화이주를 결심하는 경우로 다운쉬프트, 슬로시티, 생태예술 등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실천을 동반한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고급 소비(모피, 골프, 스키, 대형자가용 등)가 야기한 원시림과 꽃자왈의 파괴, 동물과잉사육(집단 사육, 항생제사육 등), 생태계 파괴(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가족을 얻기 위한 포획)가 전면화되고 있는 현실을 배낭여행이나 공정여행과 미디어를 통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하지만 개인의 건강과 인생에 초점을 맞춰 좀 더 자연과 가까이 살면서 평화롭게 일상을 가꾸고 싶어 하는 전원적이고 낭만적인 문화이주이다. 창작을 하고, 휴식을 하고, 자연에서 쉬고 싶은 웰빙의 욕구에 따라 지역이나 공동체에 대한 인식보다는 개인의 감각이 중요해서 오감을 확장하고 풍부한 미적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발현하는 것이다. 최근 제주도가 문화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삶의 장소로 급부상하게 된 데에는 후자의 이유가 크게 작용한 편이다.

3. 제주도의 경제이주, 낭만문화이주, 생태문화이주의 흐름

최근의 제주 이주 흐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50~70대가 명퇴나 은퇴 후 결행하는 경제이주보다는 20~40대의 낭만 문화이주와 생태 문화이주의 흐름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삶의 질을 선택하는 사람들, 생활 기반을 생

활 생산을 통해서 직접 만들려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많은 창작자나 문화계와 예술계 종사자들이 이주를 결심하고 있고, 세대에 따라 직업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성공과 부와는 다른 가치를 찾고 싶어하는 생태 문화이주 경향을 내재하고 있는 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로의 이주는 제주 특산물의 변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1970년대부터 제주 관광이 서서히 활성화됨에 따라 시장점포 개설, 음식점, 숙박업 등에서 관광 경제이주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고 감귤이나 당근, 무, 배추와 연관된 농업이주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항공 산업의 발전으로 탄력을 받고 2008년 이후로 저가항공사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장년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귀농귀촌과 전원이주의 흐름이 형성 되는데다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선정 및 올렛길의 형성과 더불어 문화이주의 흐름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도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구직과 학업을 위해 청년들이 도시로 도시로 떠남에 따라 인구감소 추세에 있지만 제주도의 인구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돌아선다. 2011년에는 2,340명, 2012년에는 4,873명이 증가하였고 이 중 2011년 통계에 따르면 귀농자는 19%이고, 81%는 농사와는 다른 이유로 제주도로 이주하고 있다. 그 중 많은 수가 경쟁사회와는 다른 사회를 꿈꾸면서 문화적이고 예술적 삶을 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선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새로운 창작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에 몸을 던지기 위해 J턴이거나 I턴으로 오고 있어 낭만문화이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예술가들의 이주는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 동안 이미 여러 형태로 있어왔다. 작업실을 찾기 위해서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도시 주변부에서 위성도시나 근교지로 이주를 하였다. 2000년대 초 서울에서 일산/과주로, 서울 주변부에서 남양주/가평/양평으로, 인천 도심에서 강화도 섬으로, 서울 대학로에서 화천이나 원주로의 이주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현재 많은 40~70대 작가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대학로 문화지구와 홍대 상권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밀려난 젊은 작가들이 문래동, 이태원 남산 아랫마을, 우이동, 성북동으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대도시 안에서의 이주나 근교로의 이주는 대부분 값이 싸거나 창작하기 좋은 조용한 환경을 찾아 이주한 것이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서 이민에 가까운 제주도로의 문화이주는 기존의 싸고 조용한 작업실을 찾아서

옴기는 문화이주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강원도로의 건강/힐링 이주, 지리산 문화권의 산과 야생초와 차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이주와도 다르다.

제주도로의 이주 붐, 광풍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 이 현상은 2007년부터 만들기 시작(2012년 11월 전구간 완성)한 <제주 올레> 루트에 2010년부터 올렛꾼들 뿐만 아니라 올레 관광객과 일본/중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유럽과 일본의 길들을 경험했던 영화감독, 잡지 기자, 미술가들이 제주 바다와 오름과 올레를 가슴에 담고 <제주 올레>를 콘텐츠화하기 시작했다. 올레를 걷는 사람들은 올렛길을 통해서 제주의 마을과 직접 만나게 된다. 단순히 관광지 관광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걸어서 직접 자연과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새로운 경험이다. 느리게 걷는 과정에서 자신의 저 깊은 곳에 눌러왔던 욕구를 불러낸다. 부모 세대가 산업화 과정에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 혹은 운동 차원에서 오르던 정복, 건강이라는 산행 가치와는 다른, 천천히 느리게 걷는 것을 통해서 자연을 더 가깝게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걷기를 통해서 얻는 미적 경험과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존재감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제주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이주를 결심한다. 그래서 판에 박힌 생활을 하던 직장인이 사표를 내고 청년들이 대기업과 연구원을 포기하고 제주를 선택한다. 보이지 않는 미래와 답답한 노동구조에 대한 절망에서 다른 노동방식으로, 적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을 꿈꾸며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2013~14년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청년들의 낭만문화이주 흐름에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나 제주를 조금 경험하고 나니 경제적 이유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제주도민을 만나면서 제주는 여타 도시와 별반 다름이 없는 개발과 이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곳임을 직시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청년들도 있고, 이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다. 후자의 청년들은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슬로라이프(slow life)를 선택해 삶의 규모를 줄이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순환을 만들 방법을 실험하고 모색함으로써 생태적 문화이주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 청년들 중에서 생태적 문화이주를 꿈꾸는 이들에게 제주는 더없이 좋은 환경(자원)이다. 바닷가나 중산간이라면 마을 빈집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삶의 규모를 줄여(downshift) 다른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예술가들에게 제주는 관광의 섬이 아니라 자연 자체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거대한 장소이자 예술적 동기로 자신의 삶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주지로 나타난다. 조금 가난한 것, 거친 바람과 습도가 주는 불편함은 감성을 예민하게 만들어 주는 보물 같은 자연 환경이 주는 축복에 비하면 작은 고통일 뿐이다. 제주도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예술가와 문화이주자는 경제적 이유가 아닌 문화적 이유로, 예술 작품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며 존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 선택에 성공과 실패는 없다. 그 자체의 삶, 예술적 삶이 있을 뿐이다. 낭만문화이주를 하는 많은 예술가들은 아름다움 때문에 제주를 선택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순환 에너지와 물질 교환과 노동과 실천의 균형이 깨지고 있음을 목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예술적 감성으로 자신의 몸에 각인할 때 예술가/건축가/디자이너/조경가/공학자들의 생태 문화이주가 시작된다. 낭만문화이주와 접근방식이 다른 생태적 문화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주의 그 아름다움이 이어지길 바라고,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주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또한 생태 문화이주를 생각하는 기획자, 인문학자, 미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공연 예술가 등은 많은 신화를 간직한 제주 마을의 공동체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활성화되고 생태적으로 보전되어 다양한 예술적 활동이 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꿈꾼다.

4. 생태문화이주의 4가지 사례

필자의 제주도와의 인연은 2010년에 시작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 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제주도 가시리의 <가시리창작지원센터> 계획과 레지던시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으면서 시작되었다. 마을에서 세운 초기 계획은 컨테이너 4동을 오름 아래 놓고 작업실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이는 당시 한참 유행하고 있던 작업실 제공형 레지던시였다. 서울시 창작공간 금천 예술공장을 맡으면서 고민했던 것을 바탕으로 제주 마을의 현실에 맞게 목표를 찾아가면서 예술레지던시와는 다른 제주 특성을 담은 ‘마을레지던시’ 개념을 만들었다. 가시리 마을회에서는 150평 정도의 마을 땅을 내놓았고 윤용원

(제공건축) 건축가는 4동의 작업실과 1동의 공유 공간을 설계함으로써 제주 마을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문화정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여러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젊은 작가들과 기획자들에게서 대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원인들, 대도시 구조의 세계에 대한 진단, 제주가 안겨주는 미적 경험의 그 무한함과 풍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때 발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생태 문화이주의 특징에 대해서 보려고 한다.

<사진 2,3> 선흥예술작목반이 진행한 선흥리 동백동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례 1.

제주시 동쪽 조천읍 선흥리는 거문오름과 람사르 습지인 동백동산이 인근에 있는 마을이다. 그 곳에는 서울에서 태어나 살다가 제주도가 좋아서 7년 전에 제주에 온 김세운(재즈 피아니스트)이 정착하여 2011년 카페 ‘SEBA’를 오픈하였다. 제주도는 그녀에게 영혼을 채워주는 집이고, 음악은 그녀와 제주를 이어주는 매개체였다. 또 2010년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입주작가였다가 제주도 정착을 결심하고 선흥 마을로 이주한 정은혜(미술치료사, 화가) 작가는 마을 주민을 위해 요가수업을 개설하고, 꽃자왈 숲인 동백동산에서 선흥분교 아이들과 생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제주도에 어린이힐링센터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다. 하루하루 느끼는 제주도 자연은 그녀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치유로서 예술의 힘을 생성하게 한다. 최근 김세운, 정은혜 작가는 선흥축제 등 마을에서 작은 기획을 만들어가는 문화기획자와 디자이너, 저술가, 출판기획자 6명이 모여서 <선흥예술작목반>으

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마을로 지정되고 다양한 생태교육과 동백동산 해설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생태문화예술교육과 생태예술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실천하고 있다.

사례 2.

제주시 협재리 쪽에는 만화가가 만든 게스트하우스 <쫄깃센터>가 있다. 웹툰 작가 메가쇼킹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과정부터 소셜펀딩을 통해서 재원을 모으고 몇몇 동반자들과 함께 공사를 하였다. 지금은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해졌고, 이곳에는 제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만화를 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제주도를 찾는 각각의 사연을 나눈다. 이곳에 쫄패(쫄깃센터 패밀리)로 있던 강민석(회화, 일러스트)을 비롯해 제주 해녀학교에서 만난 6인은 애월읍 봉성리에 <반짝반짝 지구상회>를 만들었다. 제주도의 즈믄(해녀)를 이해하기 위해 제주적 삶의 방식을 찾고, 바다 속을 알아보려는 등등의 여러 이유에서 출발한 이들은 한수풀 해녀학교에서 물질을 배우며 친해진 사람들의 작당이다. 바다 속에 전복이 천지에 널려있다고 상상하고 들어갔다가 쓰레기가 더 많은 것을 목격하고 쓰레기를 쓰레기 아닌 것으로 만들어보자는 즐거운 생각에서 이들의 모임은 시작된다. 2012년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있다가 현재는 제주시 광령 김택화 선생님의 집에 머물면서 유리로 평면작업을 하는 조원희(회화) 작가와 해녀보다 더 해녀다운 김승환(영상, 다큐) 감독, 최윤아(디자인), 스킨스쿠버숍에서 일하고 있는 유로사(한국잠수협회 연구원) 등이 제주도 바닷가에서 해양쓰레기들을 수집하고, 유리로 작품을 만들거나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작업장/공방을 만들며 '제주도 좋아'의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근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례 3.

서귀포시 동쪽 남원읍 하례리에는 서귀포시 인근과 범환동에 거주하면서 <꿈꾸는 고물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 쌍의 부부가 있다. 제주 생활 7년차인 유광국·염정은 부부는 국민대에서 함께 디자인을 전공하였는데 유광국 작가

는 주로 그림과 그래픽디자인을, 염정은 작가는 종이와 패브릭 등을 활용한 여러 가지 공예 작업을 한다. 올해로 이주 3년째인 이가영(공연기획, 연출가)·민경언(배우) 부부는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예술 분야에서 각기 배우와 기획/연출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꿈꾸는 고물상>에서는 영상 제작, 목공이나 공예 작업 등을 같이 한다. 2012년에 이주한 이치웅(디자이너)·이은희(생활창작예술가) 부부는 목공과 조소 작업을 하면서 <꿈꾸는 고물상>의 텃밭인 <꿈꾸는 이랑>을 가꾸고 있다. <꿈꾸는 고물상>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방치되었던 2층 집을 개조해서 만든 창작공간 '고물창고'와, 감귤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보물창고' 두 개의 건물로 나뉘는데, '고물창고'는 세 부부와 참여하길 원하는 작가들과 문화 생산자들의 작업실이자 공방이고 '보물창고'는 공연, 전시, 영화 감상, 음악회, 세미나 등 모든 것이 가능한,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다. 한 달에 한 번씩 '고물데이'를 정해서 마을과 주변지역 주민, 고물상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고물을 업사이클링 작업하여, 창작재료로 생활창작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술을 높은 좌대에서 일상의 가치로 전환하면서 10~2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마을을 만들려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기를 꿈꾸고 있다.

사례 4.

서귀포시 서쪽 대정읍 월평리에는 제주도 1호 문화협동조합이 있다. 월평리 입주작가로 왔다가 서귀포 창작레지던시와 인천아트플랫폼을 거쳐 현재는 강원도에서 지내는 김민희 작가와 연결이 되어 월평리 빈집 3번째 입주 작가였던 김국희(문학) 작가가 오경식(월평리 이장) 대표이사와 함께 <월평도시골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 협동조합은 도시와 시골이 결합된 삶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8명의 이사와 30명 정도 되는 구성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한용화(사진작가), 김진아(디자이너), 한운장(전자책 기획자), 박정호(여행작가), 김혜진(주얼리 아티스트, 달마루집 셰프) 등이 같이하고 있고 24명 정도의 조합원으로 확장되었다. 이들은 문화예술과 마을경제의 공존을 꿈꾸며 월평이야기길 탐방, 로컬푸드레스토랑 <달마루집>에서 음식과 공연을 즐기고 워크숍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월평리는 백합 비닐하우스와 한라봉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이 곳에서 <월평밴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파티도 계획하면서 하나의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 4> '문화공간 양'에서의 문화이주자 네트워킹 파티



5. 생태문화이주를 위한 공공정책이 필요한 때

현재 제주도는 관광과 경제적 측면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 생태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 상황에 놓여있다. 여전한 리조트개발 붐과 웰빙타운, 의료실버타운 개발 등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해외 다른 지역의 도시와 마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금 제주는 환경도시와 생태도시를 30년 전부터 준비한 유럽 도시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의 계획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현실에서는 도시와 마을에서 점점 더 집 구하기가 어렵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사 가기가 두렵고, 경관은 막히고, 공간의 생태적 흐름은 단절되고 있다. 제주 주민과 예술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다 빨리 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마음으로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 번 잘못된 결정과 개방으로 파괴된 자연의 생태적 환경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복원되었다 하더라도 예전의 그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10년 후가 아니라 30년 후, 60년 후를 바라보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 이익 증대가 장기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중국 화상 자본과 도시 투자 자본의 건설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세수 증가는 예상되겠지만 세수 증대의 실질적인 효과가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재의 구조를 직시해야 할 때이다. 소비관광의 형태를 반복하면서 세수가 늘어 재원은 확보되지만 이 재

원은 대부분 도로 확장과 주차장이나 관광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하기 때문에 '제주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와 소음과 도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아야 한다. 현재의 개발방식은 나와 마을과 지역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개발일 수도 있기에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 선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제주 설화가 내포한 은유와 상상력의 내용을 예술, 문화, 인문학으로 융합하고 제주 전통생태문화를 경제적 구조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적 관광지와 수학여행용 달콤한 박물관과 카지노 리조트가 건설되고 있는 요즘, 필요가 다른 필요를 갖게 될 미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전략과 지속가능한 방식을 구상해야 한다. 산업화 시기의 해결책이 지금의 해결책일 수 없다. 정보화 시기, 탈산업화 시기, 제 6차산업의 시기와 맞물려서 지속가능발전의 창조적 해결책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현재의 과제를 문화귀촌/문화이주와 연관해서 살펴본다면 제주는 생태 문화이주의 흐름을 접속하고 확장하고 융합해야 한다. 낭만 문화이주로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의 증가보다는 생태적 문화이주로 마을 활력, 공동체 재생, 지역 재생, 사회적 문제 해결, 미래비전을 같이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낭만문화이주는 개인적 선택이어서 공공정책의 개입이 필요 없지만 생태문화이주는 개인적 선택과 더불어 공동체성을 띠게 마련이다. 현명한 사회일수록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찾고 초대하고 불러오고 융합을 잘 하는데 여러 선진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양쪽 모두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열정을 쏟을 때 가능하다.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삼신인이 삼성혈에서 솟아 나와 살고 있다가 해변에서 곡식 씨앗, 망아지, 송아지와 벽랑국 공주 세 명이 든 석함 하나를 주웠고, 이 삼신인은 세 명의 공주와 혼인해서 자손을 번성시켰다는 제주 신화는 어쩌면 최초의 국제결혼일 수 있다. 제주도가 문화적 방식의 교류, 새로운 예술적 확장과 융합, 생태예술의 보고로서 향후 10년 예술가, 기획자, 디자이너, 건축가, 조경가, 문화예술교육자 등의 생태문화이주를 통해서 인구의 10% 정도의 창조적 인구가 늘어난다면 제주도는 하늘에서 내려 온 자연 생태, 4.3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만든 평화의 가치, 이와 더불어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창조적인 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주도 차원에서는 생태문화이주센터와 같은 적극적인 중간조직의 설립을 통해서 다양한 마을활동, 지역재생, 전통시장 재생, 장터 활성화, 생태예술활동, 생태문화/예술교육 등 풀뿌리 활동들이 서로 연계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문화생태계를 아래로부터 조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로 생태문화이주를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지역이 결합하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창조적인 기획과 산물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다음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마을 계획과 도시 및 지역 재생 계획을 생태문화권별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생태적이고 문화적이며 순환적인 그래서 경제적인 약속체계와 실행계획을 자발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바탕을 다져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생태문화이주센터나 지속가능발전선언과 지속가능한 마을계획과 지속가능한 도시/마을 재생 계획을 통해서 제주 바다, 제주 오름, 곶자왈, 제주신화, 마을민속문화, 전통생태문화가 갖고 있는 미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현재화할 수 있다. 제주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가치는 곧 경제적 가치이기도 하다. 30년 후, 60년 후를 바라보면서 고유한 전통생태문화를 발전시켜온 제주민과 지역을 생각하고 삶의 질 높은 생활을 꿈꾸며 이주를 결심한 생태 문화이주자들이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제주 아름다움의 가치를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경제를 창생할 수 있는 공공 정책과 문화 거버넌스가 필요한 때이다.

사례발표 1

제주도의 기획자로
살아가다

김연주(문화공간 양 기획자)

제주도의 기획자로 살아가다

김연주 1)

제주도로...

○...얼마 전 어떤 분이 제주도가 기획자로서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고 질문하셨다. 보통은 기획자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왔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이 좀 식상해져서인지 기획자에게 끼치는 제주도의 영향에 대해 물어보는, 조금은 새로워 보이는 질문이 반가웠다. 또한 기획자를 중심에 놓지 않고 제주도라는 환경을 중심에 놓고 출발하는 물음이 지금의 나에게 더 적절한 것처럼 들렸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의 모습은 서울에서 일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해를 놓고 보면 매년 말이나 초에 있는 지원금 공모기간에 지원서를 써서 내고, 운이 좋아 지원금을 받으면 정신없는 일정 속에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끝나면 수많은 영수증과 싸우며 정산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만든다. 하루를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잡무를 처리한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주 옛 가옥을 개조하여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서 건물수리, 나무가꾸기, 잡초 뽑기 등 공간 관리라는 또 하나의 업무가 늘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일만 하며 바쁘게 살 것이라면 왜 내려갔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주도를 치유의 섬, 느낌의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의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과 상

1) 문화공간 양 기획자, 제주시 화북동

황 때문에 제주도를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우 도시에서의 삶에 회의를 느껴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추구하고자 제주도를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나는 문화공간 양의 기획자로 일하기 위해 내려왔다.

- ...나의 첫 공식적인 직함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였다. 이를 시작으로 공공 미술과 미디어 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기획자로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그 많은 일들이 잊힐 만큼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었다. 그러나 공공미술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서 기획자, 작가, 작품, 관람객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나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를 즈음에 제주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마을에서 무엇인가 같이 해 볼 것을 제안 받았고, 나는 큰 고민 없이 수락하였다. 나에게 제주도는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의 한계를 넘어서 꿈꾸던 이상을 실현해 볼 공간으로 생각되었다.

문화공간 양에서...

#1. 마을 내 문화공간 양

- ...제주도로 내려오겠다고 결심하자마자 먼저 주소부터 이전하였다. 그리고 문화공간 양 개관 준비가 한참일 때 열린 거로마을 경로잔치에 가서 자원 봉사를 하였다. 문화공간 양의 기획자만큼이나 거로마을 주민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문화공간 양의 입주작가들에게도 마을행사에는 꼭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다. 잠시 머물다 가더라도 거로마을 사람으로 살다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기획자와 작가로서 마을사람들과 무엇인가를 같이 할 때 마을사람들을 대상화 또는 수단화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진심이 통했는지 마을사람들은 문화공간 양에서 하는 일들을 대견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

마을사람들에게 문화공간 양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였다. 마을위원들을 문화공간 양으로 초대하거나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찾아가서 마을 내 문화공간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술가들이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잘 보여주는 다양한 국내외 문화공간의 사례와 문화공간 양의 사업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부녀회분들과 함께 팔찌와 브로치를 만든 ‘버려진 물건이 작품이 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베틀을 짠 ‘베틀공방’ 등의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문화공간 양을 친숙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마을주민 등 64명과 함께 만든 거로마을 당충대 모자이크 벽화 ‘삶의 빛’은 마을사람들에게 문화공간 양의 역할을 깨닫게 했다. ‘삶의 빛’은 본래 마을사람들의 소통의 장이었으나 지금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 당충대에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그 의미를 되살린 작품이다. 비전문가인 주민들의 참여에도 작품이 높은 예술성을 지닐 수 있도록 작가는 고민했으며, 보존성을 고려한 재료와 제작 방법뿐만 아니라 마을 회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들이 작품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 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 작업으로 인해 마을에서는 마을 내 예술작품 설치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같은 지역 내 교육기관이나 문화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학생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지역 내 문화공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학교 등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뢰 속에서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한 창작활동이라는 작가로서의 경험을 하게하고 전문적인 전시공간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예술에 대해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공간 양 입주작가들의 지도 아래 화북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동화책을 만들고, 원화와 함께 인쇄된 동화책을 전시한 ‘바람마을 동화공방’이 대표적인 예다. 학생들이 작가가 되어 문화공간 양의 전시공간에서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해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를 계기로 화북초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만화 그리기, 애니메이션 만들기, 전시 만들기로 이어지는 수업을 진행했다. 지금은 화북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여 교내 벽화를 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화북 청소년문화의 집과도 올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고등학생들이 사진,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화와 함께 인쇄된 만화책, 애니메이션 소품 등을 전시하고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예정이다.

○...거로마을 났게는 화북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공간 양의 기획자로 있으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다. 이 말이 기존의 정체성과는 다른 정체성을 만들겠다는 말은 아니다.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는 마을의 전통, 새로운 사람들과 공장들로 바뀌어가는 마을의 모습 속에서 옛 정신을 재해석하고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사라져가는 정체성을 다시 세워간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공간과 기억, 장소’라는 주제 아래 올 한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마을에 남아있는 옛 풍속을 기록하고 현재 변해가는 마을의 모습을 남기는 작업을 예술가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다. ‘화북문화지도’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 함께 화북동과 관련된 문화유산, 문화활동, 예술가 등을 찾아 기록하고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획된 사업이다. 올해는 첫 번째 결과물로 6명의 화북동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세계에 대한 인터뷰 영상, 사진, 만화를 전시하고 만화책을 펴냈다. 거로마을의 사라져가는 전통을 기록하고, 현재의 모습을 담아내는 ‘거로마을 이야기’ 역시 만화와 사진으로 기록된다. 거로마을에서 나고 자란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거로마을의 역사를 되돌아보자는 의도에서다.

#2. 예술계 내 문화공간 양

○...15년 정도 미술계에서 기획자로 있으면서 미술계 내에서 담론을 생산해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지역에서나마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공간들이 늘어난다면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문화공간 양은 다양한 토론회, 세미나를 열고 있다. ‘예술은 얼마인가’라는 주제의 전시에 이어 ‘예술가의 인건비’라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미술작품의 가격과 가치의 문제, 공공미술의 현황, 제주도 내 문화현상 분석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러한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이다. 패션디자이너, 재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전통침선공예가, 판화가 등 전혀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수차례의 만남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만나 협업할 것을 제안한 것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영역의 확장을 꾀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이것은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전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예술 형식에 대한 실험과 예술 영역의 확장에 대한 시도는 기존 예술 활동이 갖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을 향유하게 할 것이다.

- ...작가와 기획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문화공간 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작가와 기획자 없이 예술계 발전과 공동체 작업을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작가와 기획자를 지원하는 방법들을 다양화했다. 예술가의 거주공간과 작업공간 지원, 제주도 작가 전시지원, 전시기획자 전시지원 등이 있다. 또한 지원서 작성하기, 미술시장 이해하기 등 작가들에게 미술계 내 활동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작가 역량강화 세미나도 진행했다. 특히 제주도 내에서 기획자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획자를 발굴하여 키워내기 위한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 뿐 아니라 신진기획자를 대상으로 1:1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전시를 지원하는 방식도 병행하여 전시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제주도민에게 문화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자 문화공간 양은 구상회화가 주류를 이루는 제주도에 젊은 작가들의 실험성이 강한 다양한 분야의 현대미술을 소개하고 있다. 금속공예, 설치, 콜라주, 목가구 등의 전시가 지금까지 문화공간 양에서 열렸다.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작가의 대화는 작가의 작품세계 전반을 소개하고 전시된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일반인과 작가 모두 작가와의 대화를 만족스러워 했다. 일반인들은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 ...공공 미술(public art), 공동체 미술(community art), 사회적 미술(social art) 등 미술관이나 화랑 밖에서 벌어지는 예술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누군가는 문화공간 양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아마 위의 용어 중 하나로 정의할 것이다. 그 무엇으로 불리던지 문화공간 양은 어떤 개념에 묶여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참여로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가는 문화공간이 되고자 한다.

문화이주자에서 제주도의 기획자로...

- ...문화공간 양의 기획자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서는 문화이주자라는 호칭이 따라 다녔다. 결혼 때문에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결혼이주자라고 부른다면 나야말로 기획이라는 문화 활동을 위해 제주도로 이주했으니 문화이주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문화이주자로 관심을 가져준 것 때문에 제주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문화이주자라는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문화이주자라는 용어는 이주자보다 문화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주자라는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심지어 실제 사용에서는 문화보다 이주자라는 개념이 강조된 듯 보이기 때문이다.
- ...이주자를 분류하여 파악하는 일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제주도처럼 이주자가 급증하면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를 문화이주자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제주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님을 나와 제주도에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이미 제주도에 이사 온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잘 적응해서 살고 있으며, 제주도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주자임을 깜박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 ...문화이주자라고 불리는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들과 저절로 구분될 만큼 독특함을 지닌다. 그리고 그러한 독특함이 모이면 지역의 모습을 바꾼다. 대학로와 홍대 앞이 그러했고, 삼청동, 문래동, 이태원 등이 그러하다. 제주도 역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깔의 공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마 제주도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예술가들을 특별히 문화이주자라고 부르면서 주목하는 이유는 예술가들의 독특함이 제주도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주자로서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독특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문화이주자보다는 예술가로 생각하고 예술가가 갖는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 잠재력을 제주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내가 문화이주자에서 이제는 진정 제주도의 기획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다.

○...제주도에서는 기획자로서 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우선 제주도 작가들에 대한 체계적 정리에서부터 그들의 작품을 비평하고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젊은 제주도 작가들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의 작가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현상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주도에 맞는 문화행사를 키워가는 것 또한 기획자의 할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서는 기획자로서 하고 싶은 일이다. 제주도가 기획자로서의 활동에 준 영향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알게 해 준 것이다. 제주도에 와서 서울에서보다 예술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여전히 제주에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다.

사례발표 2

나의 직업은?

배효정(미디어작가)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배효정 1)

곧 가을이 되니 옷이나 몇 벌 장만 해 볼까 싶어 들러 본 인터넷 쇼핑몰의 가입 정보란을 채우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멈칫’ 하고 만다.

나는 지난 이십여 년 간 꾸준히 학생이었다. 초, 중,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잠시 대학원생이었다가 휴학생을 거쳐 다시 유학생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학생 생활을 다 해본 나는 명실상부한 ‘프로페셔널 학생’이었다.

반쯤 성공하고 반쯤은 실패했던 유학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돌아온 한국에서, 나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직장인이 될 준비도, 주부가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어리숙한 예술인 지망생일 뿐이었다. 작업실 유지비는 비쌌고 용돈은 끊겼다. 생활을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다.

무기력함을 떨치지 못하고 힘들어 하던 나에게, 제주에 정착해 살고 있던 친구가 잠시 쉬러 오라며 손을 내밀었다. 에라, 모르겠다고 별 기대 없이 며칠 머리카락 식힐 겸 들른 10월의 제주는 하늘도 바다도 한없이 푸르렀다. 막혀있던 숨통이 제주의 푸른 바다 앞에서 트였다. 살 것 같았다.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부터 여행 내내 바닷가 근처 빈집들을 찾아다녔다.

제주로의 이민을 마음먹은 뒤 내가 가장 고생했던 부분은 ‘집 구하기’ 였다. 제주도에는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든 ‘년세’ 계약이라는 게 있다. 1년 치의 월세

1) 미디어작가, 한림음 협재리

를 한 번에 지불하는 대신, 보증금 없이 혹은 아주 약간의 보증금만 내고 1년을 계약하는 방식이다. 주인은 세가 밀릴 걱정이 없고 세입자는 보증금의 부담이 없다. 목돈이 없었던 나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계약 조건이었다.

하지만 년세 집을 찾는 것도 어려움이 따랐다. 세를 주시는 마을 어른들은 대부분 제주 토박이 분들이고 타지에서 온 젊은 처자를 뭘 믿고 선뜻 집을 내어주느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믿음을 드리는데 수밖에. 집을 계약하기 전까지 한동안 친구의 집에 신세를 지기로 하고 거의 매일같이 점찍어둔 집의 주인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다녔다. 그리고 앞으로 집 관리도 잘 할 것이며, 년세도 밀리는 일 없이 잘 낼 것이고, 앞으로 동네에서 뭘 하고 지낼 것인지 틈만 나면 말씀드렸다.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그렇게 공을 들이기를 3개월. 친구간의 시기가 다가오자 드디어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드디어 ‘집을 너 주마’고 승낙하셨다.

2013년 1월 나는 그렇게 제주로 도망쳤다. 드디어 제주도민이 되었다.

1월의 제주는 정말이지 너무나 추웠다. 내가 얻은 시골집은 보일러가 아예 없었다. 제주도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이사 후에 알게 되었다.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빌려주신 전기난로는 전기세가 무서우니 잠시 공기만 데운 후 꺼버리고,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 안에서 밥 먹고, 잠자고, 책을 읽고 놀았다. 어차피 백수라 오늘 꼭 해야 할 일도, 내일 일찍 일어나 만날 사람도 없었다. 무려 두 달간을 겨울잠을 자고 일어났다. 드디어 봄이 왔다.

여전히 바람은 매서웠지만 3월의 별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옷을 꺼입고 집 앞 포구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면서 이제 뭘 먹고 살지 생각해 보았다. 제주까지 와서 직장 생활을 하기는 싫었다. 그러던 중, 내가 얻은 집이 혼자 쓰기엔 넓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다가 가까우니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면 한 달 용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민박을 해 보자.

읍사무소에서 민박업 신청을 하고 인터넷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과정이 며칠 만에 허무할 만큼 후다닥 끝나버렸다. 집 단장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

금은 없었다. 부모님께 여름 성수기에 석 달에 나눠 갚아 드린다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렸다. 침대를 살 돈은 없으니 매트리스만 사서 놓고, 가구는 최대한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리폼을 했다. 도배를 다시 하긴 아까운데 벽지가 너무나 촌스러워서 수성 페인트를 사용해 직접 색을 입히기로 했다. 나는 돈은 없고 시간은 많았다. 그리고 그림을 전공한 든든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와 함께 민박집의 벽이 따뜻한 색이 좋을까, 시원한 색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왕 하는 것 신나게 해보라며 벽에 물감을 왕창 발라 버렸다. 사다놓은 페인트에 조색용 잉크를 섞다가 색감이 영 칙칙하다며 작업할 때 쓰던 아크릴 물감까지 아낌없이 짹 짹 발라대며 신나게 며칠 놀고 나니 완성하고서도 왠지 피식 웃음이 나는 재미있는 방이 되었다. ‘우리는 비싼 돈 들여 유학 다녀와서 민박집 페인트 칠 하면서 전공을 살리고 있다’며 둘이서 한참을 웃었다. 홍보는 인터넷 상의 블로그로, 예약은 전화로 받기로 했다.

5월의 어느 날, 드디어 첫 손님이 왔다. 봄을 맞아 제주로 꽃구경을 왔다는 여자 손님 두 분이였다. 어찌나 떨리고 긴장되던지 손님들이 오시기 전 방을 세 번은 닦은 것 같다. 다음날 아침, 잘 자고 간다며 짐을 꾸려 나가시는 손님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그렇게 첫 손님을 맞은 후 신기하게도 한 분, 두 분 손님들이 찾아 오셨다. 오픈 첫 달 수익이 40여만 원. 내 목표가 소박했는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6월이 되자 7,8월 성수기 예약 문의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오기 시작했다.

바쁜 중에도 제주에 오면서 꼭 해야지 하고 목표를 삼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해녀학교 입학이었다. 해녀학교는 여름 석 달간 매주 토요일에 수업이 있다. 오전에는 민박집 청소를 하고, 한가한 날이면 친해진 동기들끼리 제주도 전역으로 물질을 다녔다. 그들도 대부분 나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인생에서 한 부분을 잠시 휴식하기로 한 사람들. 전직 회사원, 만화가, 연구원, 선생님 등등 직업도 나이도 천차만별이지만, 다들 한 가지는 공감한다.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순간이 또 있을까. 그렇게 제주의 첫 여름이 흘러갔다.

가을이 되고 민박집과 분리된, 나의 작업실 겸 살 집을 따로 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마침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 있었다. 지난여름 내내 해녀학교를 다니

며 익숙해진 마을이었다. 특히 마을의 이장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을 활성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어른이셔서 이곳 마을에서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는 빈집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의 버려진 폐가들이나 사용하지 않는 창고 등을 작가들의 창작공간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개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침 이사한 마을에 알맞은 공간이 있었다. 내가 처음 제주로 올 때부터 줄곧 함께 하던 친구와 사업 지원 신청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한동안 손 놓고 있었던 미술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았다.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마을 주민 분들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논의 하다 보니 어느새 겨울이 되었다.

그러던 중 함께 주축이 되어 일하던 친구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거의 3주간을 입원을 해야 할 정도였다. 그해 겨울, 대학병원에서 친구의 병간호를 하며 한 달을 보냈다. ‘급하게 마신 물은 체하는 법’. 우리에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다음번에는 끝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프로젝트는 다음을 기약하며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다.

새해가 밝았다.

겨울 추위는 여전히 매서웠다. 같이 유학 생활을 했던 친구나 지인들이 개인전 소식을 알려오고, 누구는 유명 레지던시를 들어갔다더라, 어느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한다더라 하는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왔다. 마음은 더 조금 해 졌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나 또한 대학원을 마칠 즈음이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불안감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제주의 겨울밤은 길었고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졌다.

단출한 짐을 꾸려 며칠간의 제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한라산은 오르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라던 내가, 1100고지의 산장에서 눈 덮인 산을 바라보다 무엇에 홀린 듯 영실코스를 올랐다. 산장 사모님이 빌려주신 아이젠을 차고도

눈 덮인 산길에 자꾸만 발이 미끄러졌다. 오기가 생겨 앞서 오르는 사람들과 뒤섞여 행여 뒤쳐질세라 꾸역꾸역 산을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심각한 운동 부족 상태였음을 깨달았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역시나 내 뒤로 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나를 제주로 오게 만든 제주의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내 발 아래 있었다. 더 넓은 세계가 더 높은 곳에 펼쳐져 있었다. 숨을 고르고 눈발에 벌렁 누워 하늘을 보다보니 또 다른 등산객들이 산길을 올라오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제주는 나에게 중간자의 도시이다. 한국이되 한국이 아닌 곳, 현실이지만 꿈같은 곳, 특별자치도.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특별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곳. 육지에 사는 다른 이들과 내 삶을 비교하며 살기엔 제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이 섬 밖 누군가는 학위를 따고, 전시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고, 멋진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 나는 지난 여름 내내 아름다운 바다를 누볐고 따뜻한 별 아래서 실컷 책을 읽고 밤이면 좋은 사람들과 막걸리를 기울였다. 알람 소리가 없어도 해가 뜨면 눈이 떠지고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눈 내린 한라산에 있다. 무엇이 부족한가? 조금해 하지 말고 내 호흡을 유지하며 살아보자 다짐해본다.

그리고 두 번째 봄이 되었다. 다시 친구간이 되고 주인 할아버지께 1년 치 집세를 드리는데, ‘마을의 빈집이 하나 더 있는데 네가 가꿔서 장사를 더 해보련?’ 하신다. 자주 뵈던 앞집 할머니께서도 ‘마침 우리 집 2층이 비어있는데 너 빌려줄까?’ 하신다. 집 구하기 힘들다는 바닷가 마을에서 그렇게 나는 열걸에 집을 3채나 빌어서 민박을 하는 민박집 주인이 되었다.

마당에 검질(잡초)을 매라는 주인 할머니 말씀에, 꽃이 예쁜 잡초는 화초인가 남겨두고 먹으라고 심어두신 부추는 잡초인가 싶어 열심히 뽑고 있었더니 혀를 꼰꼰 차시며 ‘이 아이를 어찌면 좋으냐.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얼른 시집이나 가라.’며 옆에 앉아 함께 검질을 매주신다. 처음 제주로 왔을 때 무슨 말인가 고개를 가우똥하게 만들었던 제주 사투리가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반은 알아듣고 나머지 반은 눈치로 알아챌 정도는 되었다. 만날 잔소리

하시던 무서운 주인 할머니가 이제는 든든한 지원군인 ‘우리 삼촌’이 되어 주신다.

아직도 내가 운영하는 민박집엔 간판이 없다. 아마도 쇼핑몰 가입 정보란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내 가슴이 덜컥 했던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곳에 간판을 달면 ‘나는 민박집 사장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서...그것이 예술가로 살고픈 내 꿈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덩동, 문자가 온다. 손님인 안부 문자이다. 지난 여름 아이들과 너무 잘 지내고 왔다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들르고 싶다고. ‘나도 제주에서 사장님처럼 살고 파요.’ 하신다. 생각지 못하게 흘러온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꿈이구나 생각해본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생각보다는 꽤 능청스럽게 민박집을 잘 꾸려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헤헤 웃으며 ‘제주에 놀러왔다 얼떨결에 민박집 하는 예술가 지망생이요.’ 할 터이다. 이제, 민박집 간판을 주문하러 가야겠다.

사례발표 3

제주에서 미래를
꿈꾸다

박동필(IRUMME 컨설팅 대표)

제주에서의 미래를 꿈꾸다

박동필¹⁾

1. 入島

교육학을 전공하고 기업교육, 인재개발(HRD)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서 살아가던 삶은 비교적 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 안정된 생활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주말과 휴일까지 반납하는 주 7일 근무도 평범한 일상이었다. 덕분에 한창 귀엽게 재롱을 부리던 시기의 아이의 모습은 오로지 잠든 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아이가 그런 아빠를 옆집 아저씨보다도 낯선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이었고, 건강도 급속히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 제주도는 어깨를 누르던 짐을 벗고 지친 삶을 쉴 수 있는 낙원과도 같은 곳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미 여러 차례 제주를 여행하면서 언젠가는 제주에 와서 살아보리라 다짐하고 있던 나의 마음 속에 오름의 완만한 곡선과 바다의 푸른 빛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주어진 일을 접을 수도 없었고 가정을 이룬 사람으로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제주로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제주와 관련된 정보를 닦치는 대로 뒤지고, 부동산 시세를 살피고, 구인 사이트를 기웃거리면서 3년여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찰의 순간이 찾아왔다. 내가 제주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과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서울에서 누리던 안정된 수입에 제주가 주는 편안하고 아늑한 삶을 덤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지금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했음에도 나는 그것

1) 이룸컨설팅 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전문가, 제주테크노파크 기술경영지원단 위원, World Institute for Action Learning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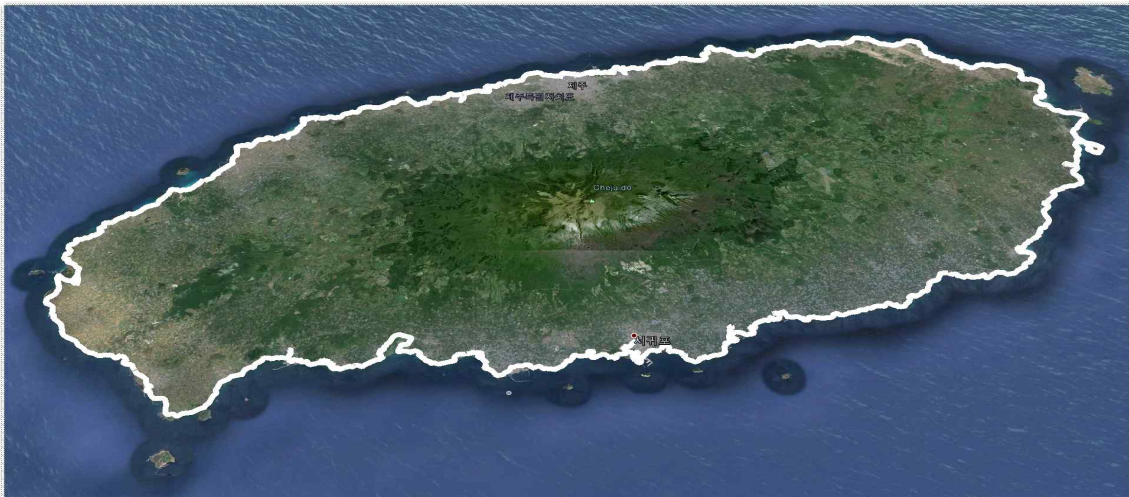
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더 이상 제주행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8년이 저물어 가는 12월 마침내 우리 가족은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 探島

◆ ‘생태적 도피’로 시작된 제주에서의 삶

우리 가족의 제주 이주는 문화이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에서의 삶에 지친 나머지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무작정 짐을 꾸린 ‘생태적 도피’ 가까운 이주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떠나온 무대책 이주였던 것이다.

입도 후 한동안은 아무런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제주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녔다. 동쪽과 서쪽을 가리지 않고 오름을 다녔고, 제주와 서귀포를 마다하지 않고 차를 몰았다. 덕분에 제주의 구석구석 다니지 않은 곳이 없는 지경이 되었다.



<제주를 속속들이 만나다 - 제주 도보일주>

◆ 삶의 현장으로서의 제주

기업교육 시장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제주는 결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우선 기업교육의 수요자인 기업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대부분의 기업 규모가 종업원들의 교육훈련에 과감히 투자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요가 부족한 편이다.

이처럼 수요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공급자도 제한될 수 밖에 없어, 현재 제주도에는 기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전문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교육과정 개발 이외에 보다 전문적인 HRD 관련 솔루션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제주만을 시장으로 삼아 기업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여전히 '육지'를 왕래하며 사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3. 樂島

◆ 문화예술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은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을 계발하는데 있어 매우 훌륭한 콘텐츠이며, 이미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계획한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지향하는 바, 즉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목적과 목표가 명확하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일련의 학습활동들이 정해진 목적과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조직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교육목적과 목표가 뚜렷할수록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학습활동들이 개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여 하나의 통합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훌륭하게 구성된 교육과정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인성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문화예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인성을 계발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습활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문화예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 특히 또래 관계 등과

같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성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통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 제주 설화 앱북 개발 프로젝트 : ‘제주어로 만나는 제주의 이야기’

지난 여름 어린이들에게 제주 설화와 제주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제주의 전통 설화를 제주어로 풀어낸 스마트기기용 앱북(AppBook) ‘설문대할망, 드리 줌 농아줍서’를 제작했다. 2013년 여름부터 약 3개월 여에 걸친 기초작업을 통해 1차로 제작된 앱북을 작년 한글날에 즈음하여 공개하였고, 2014년 중반 한 달여의 수정작업을 거쳐 완성된 앱북이 마침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배포되기 시작했다.

앱북 제작과정에서 삽화와 나레이션, 음악 등 제작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은 뜻을 같이한 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에 힘입어 앱북은 현재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된 앱북은 지난 가을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2014전국 사투리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설문대할망, 드리 좀 놓아줍서’ 화면>

제주 설화와 제주어를 어린이들에게 알리는 ‘제주어로 만나는 제주의 이야기’ 프로젝트는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제주도민이 된지 어느새 만 6년이 넘었다. 여전히 한 달에 한 두 차례 씩 서울 출장을 다니고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서울보다는 제주가 더 편하고 낯익은 곳이 되었다. 서울의 소음과 매캐한 공기는 김포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제주를 그리워하게 만든다. 처음 제주 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던 아내도 언제부터인가 이 곳 제주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 것을 보니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은 ‘육지것’이 아니라 ‘제주것’이 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토론문 1

문화이주자와 공생을
꿈꾸다

백용성(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 대표)

문화이주자와 공생을 꿈꾸다

백용성¹⁾

1. 문화이주자가 생각하는 적정성의 문제

이광준은 「문화귀촌·문화이주의-배경과 흐름」에서 문화이주의 욕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대도시에서 사느냐? 소도시와 농산어촌이냐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된 것이다. 적정 규모의 도시, 적정 규모의 노동, 적정 규모의 기술로 이루어진 삶을 희망하는 것이다.”

여러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있겠지만, 이러한 지적은 요즘의 이주에 대한 희망을 적절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적정성, 각 지역이 내포하는 적정성은 상당히 다양할 것이다. 제주에서의 적정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앞으로의 제주이주에 있어서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괜한 환상을 품거나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히 객관화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논의는 가능하다.

질문1. 제주에서의 적정규모는 어떠한가? 그리고 어떻게 느껴지는가?

2. 생태문화이주에 대한 공공정책의 문제

이광준은 문화이주를 크게 낭만문화이주와 생태문화이주로 적절히 구분해 표현한다. 다음은 그 설명이다.

“제주도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예술가와 문화이주자는 경제적 이유가 아닌 문화적 이유로, 예술 작품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느낄 수 있는 시간

1)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디렉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 교수, 비서구 문학잡지 바리마 편집위원, 해양 문화 편집위원, 철학자

을 만들며 존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 선택에 성공과 실패는 없다. 그 자체의 삶, 예술적 삶이 있을 뿐이다. 낭만문화이주를 하는 많은 예술가들은 아름다움 때문에 제주를 선택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순환 에너지와 물질 교환과 노동과 실천의 균형이 깨지고 있음을 목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예술적 감성으로 자신의 몸에 각인할 때 예술가/건축가/디자이너/조경가/공학자들의 생태 문화이주가 시작된다. 낭만문화이주와 접근방식이 다른 생태적 문화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주의 그 아름다움이 이어지길 바라고,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주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또한 생태 문화이주를 생각하는 기획자, 인문학자, 미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공연예술가 등은 많은 신화를 간직한 제주 마을의 공동체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활성화되고 생태적으로 보전되어 다양한 예술적 활동이 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꿈꾼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그는 개인적인 낭만문화이주보다는 생태 문화이주자에 주목하며, 그들에 대한 공공정책을 위로부터의 방향과 아래로부터의 방향 두 가지의 균형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이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제주도 자체의 문화예술정책과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문화이주자’만을 ‘위한’ 공공정책은 제주 전체의 시민의 문제가 빠질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질문2: 문화이주자에 대한 공공정책,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질문3: 위 공공정책과 제주문화예술 공공정책의 연결점은 무엇인가?

3. 공생의 상호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문화선주민의 입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주자에 대한 선주민의 태도, 생각, 감정,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의견들이 필요하다. 사실 이주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선주민의 부정적인 태도나 입장도 많아지는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 현지인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외지인들의 폐쇄적 태도로 인해 그것이 강화되기도 하며, 역의 경우도 가능하고,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만나는 것은 아름답지만 이상적이다. 즉 서로의 이해가 없이는 공생이

불가능하다. 한 마디로 ‘시간의 이빨을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과 그에 대한 토론은 매우 중요하다.

질문4. 상호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어떤 지속적 관계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싶은가?)

토론문 2

문화귀촌·문화이주의
배경과 흐름

김동현(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문화귀촌·문화이주의 배경과 흐름

김동현¹⁾

이광준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주도정은 여전히 대규모 투자 개발 방식을 지향하고 있고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생님의 발표문은 '제주'의 미래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로 이주해 온 많은 도시인들은 제주의 생태환경에 대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정책적으로 환경 도시로서의 가치보다는 JDC로 상징되는 거대 개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주 개발 방식에 작은 균열점을 준 것이 바로 올렛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렛길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꾼 징후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제주이주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시점이 올렛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7년~2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렛길이 제주의 콘텐츠를 바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이주는 선생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낭만적 이주의 형태가 많았고 이러한 이주는 지역/지역주민들과의 관계성이 결여된 고립된 '이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사례로 제시해주신 이주의 사례들은 고립된 이주가 아니라 지역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문화·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낳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태문화이주에 대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 역시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산업화 시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화귀촌/문화이주와 관련한 생태 문화이주의 흐름으로 접속하고 확장하고 융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태적 문화 이주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재생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회복은 현재 제주적 상황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1)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고 생각합니다. 문화귀촌/문화이주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제주시 도심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아직까지도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강하게 조직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감도 많습니다. 이러한 반감을 단지 제주도민들의 폐쇄성이나 배타성으로 치부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문화이주/문화귀촌이 일부 지역에서 지역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문화·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문화’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 설화가 내포한 은유와 상상력의 내용을 예술, 문화, 인문학으로 융합하고 제주 전통생태문화를 경제적 구조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구체적 형태가 무엇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기만 합니다.

1. 제주 전통생태문화를 경제적 구조와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선생님의 제언들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계몽적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생태문화이주를 통해 인구의 10% 정도가 창조적 인구가 늘어난다면 제주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창조적인 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6만 명의 생태문화이주가 이뤄지고 이들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이뤄진다는 전제입니다. 제주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아연한 대목입니다.

3. 현재 제주도내 부동산 열풍이 중국인들의 자본투자에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많은 부분은 외지인들의 ‘묻지마 투자’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주로 이주하려는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규모의 토지와 주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규모의 토지와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주 열풍만으로도 이미 제주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 명이 생태문화이주를 한다면 과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4. 그리고 생태문화이주를 통해서만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태문화이주센터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의 자생적 토대를 강화하는 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 내의 문화생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 당국의 관심도 부족합니다. 제주 지역 내 문화생태계 전반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부

제주, 문화예술섬으로 거듭나기까지

사례발표	1. 평화와 예술, 인천의 섬들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55
	2. 도시와 문화정책의 파트너십, 싱가포르	이정민 (도시계획학박사)	69

주제발표	제주, 마을미술에서 세계 예술섬까지	김해곤 (섬아트문화연구소장)	97
------	---------------------	--------------------	----

토론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	109
		이정희 (문화기획자, 꽃삼컴퍼니 대표)	115

사례발표 1

평화와 예술, 그리고
인천의 섬

허은광(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평화와 예술, 그리고

인천의 섬

허은광 1)

인천 앞바다 경기만의 다도해는 크고 작은 섬 170여 개로 이뤄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하는 섬 주민은 대략 8,700여 명에 이른다. 한때 강화도, 백령도, 덕적도 등 인천의 유인도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제는 귀농과 귀촌이란 새로운 조류 탓에 섬으로 역이주하는 도시민이 적지 않다. 인천의 도서지역은 여전히 문화예술 소외지역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섬 내에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 인프라가 충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천의 도서지역이 최근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로 대변되는 시민 중심의 문화정책 탓도 있거니와, 그동안 인천에서 추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섬 지역으로 꾸준히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1)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I. 들어가며 :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인천아트플랫폼이 기획하는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는 2011년에 첫 닷을 올렸다. 해안과 내륙이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인천의 지리적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인천과 서해의 평화’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인천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자연스럽게 대두하였다. ‘평화’ 그 자체가 예술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보편적 주제이기도 하지만, 당시 남북긴장의 활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많은 예술가가 평화 담론의 적극적 발신자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예술현장의 움직임이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의 출항으로 이어진 것이다.

1.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문화예술지원기관인 인천문화재단과 레지던스 중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지향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은 ‘평화’를 주제로 하되, 기존의 작품만을 선별해서 전시하는 전통적인 기획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리고 여기(now and here)’로 대변되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백령도와 대청도 팸투어 소식을 접하고, 인천아트플랫폼이 추천한 작가 20여 명이 배에 몸을 실었다. ‘평화’라는 주제만 설정했을 뿐, 구체적인 전시규모나 방법, 참여작가 리스트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팸투어는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의 향후 진로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팸투어 이후, 예술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식적인 채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회의체를 통해 전시기획안과 답사보고서에 대한 선행검토가 이루어졌다. 첫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해의 바다라는 서정적 측면에 인문지리적 특성을 보강하고, 평화의 관념적 측면까지 담아내어 이슈화가 가능한 전시를 구성하자’는 의견은 이후 연차적으로 이어진 전시기획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본격적인 전시기획은 인천을 무대로 활동하는 시각예술과 인문학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했다. 전시참여 작가 60여 명을 1차로 추천하고, 현장답사 기회를 놓친 작가들을 중심으로 2차, 3차 답사를 진행

했다. 거듭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작가 풀을 정리하고, 전시제목을 마침내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결정했다. 또한, 전시의 철학적 근간을 세우고자 인하대 최원식 교수에게 ‘인천평화선언문’ 작성이 맡겨졌고, 전시 개막에 맞춰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전시 진행은 급물살을 탔고, 참여작가들은 작품 제작을 위해 섬과 도시를 왕래하며 주민 인터뷰와 스케치 촬영으로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당시 인천시는 서해 5도 해역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구축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외부환경은 전시 준비를 담당하는 인천아트플랫폼과 운영위원회는 물론 참여 작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다.

마침내 전시개막. 2011년 7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1,300평 규모의 인천아트플랫폼과 한국근대문학관 건립예정지가 평화를 주제로 결집한 미술작품으로 가득 채워졌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를 체험한 현장답사였음에도 작가들이 제출한 작품은 저마다 뚜렷한 특색을 보였다. ‘평화’라는 주제만 일관될 뿐, 소재와 양식, 매체와 장르는 각양각색으로 빛났다. 한편 공간의 특성에 맞춰 자연스럽게 배치한 작품을 소주제별로도 구분했는데 ‘평화’, ‘섬’, ‘여행’, ‘휴식’, ‘서해, 자연, 비경’, ‘자연, 인간, 평화’ 섹션이 선보였다.

백령도와 대청도, 서해바다의 비경을 담은 작품은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과 함께 분쟁의 흔적을 추적하는 미술적 실험의 결과였다. 한국전쟁 이후 끊임없이 반복된 대치국면이 남긴 섬 주민의 아픔과 상처가 공성훈, 김성호, 정정엽, 이인 등의 작품에서 묻어난다. 한편 백령도 출신 작가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박충의와 최정숙은 출생 이후 줄곧 인천내륙에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작품활동을 해왔다. 특별히 박충의는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향인 백령도에 머물며 현장작업을 진행했는데, 그에게는 42년만의 귀향이었다. 1달 여간 천연 비행장으로 알려진 사곶마을 빈집에 머물며 섬과 주민들을 화폭에 담은 그의 작품은 백령도의 ‘조용한 평화’를 웅변한다. 섬 주민의 일상적인 노동과 감정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은 작품은 이탈, 고찬규, 류성환의 인물화에서도 돋보였다. 한편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한 해외작가들도 평화의 의미를 작품에 담았는데, 중국의 조우치, 쑨광화, 허원주에, 일본의 타케시 모로, 그리고 재미교포 도로시 디온이 그 주인공들이다.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는 적은 예산과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의 전시기간 동안 무려 1만 7천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출품작 중 일부는 10.4 남북공동선언 4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인천시청의 연장전시에 초대받아 경색된 남북관계와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위원회와 미술계의 평가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분쟁과 화해의 예술적 담론을 바탕으로 인천과 서해안의 군사적 긴장국면을 성찰하는 기회, 작가들이 직접 서해 5도 현장을 답사하며 창작의 모티브를 발굴하는 새로운 전시기획의 방향성 제시,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문학과 인문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 장르 간의 소통과 협력모델 구축, 인천작가와 아트플랫폼 입주작가 그리고 해외작가가 교류하는 국제 전시의 가능성을 확인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 제2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

2012년 9월 25일에 개막한 제2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는 더욱 성숙한 기획으로 60여 명의 작가들을 초대했다. 인천상륙작전의 기억과 기록을 간직한 인천의 도심 전적지를 시작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연평도를 거쳐 강화도와 교동까지 총 4차례의 답사가 촘촘하게 진행되었다. 답사마다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답사현장에 대한 강의와 참여 작가들의 토론회를 진행함으로써 다소 추상적인 평화라는 주제를 구체적인 현장과 접목시킬 수 있었다. 답사가 진행될 때마다 작가들은 창작의 모티브를 찾아 틈틈이 현장 곳곳을 찾아 나섰으며, 스케치와 영상으로 작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한편 1회 전시회와 달리 부대 프로그램으로 설화채록 프로젝트와 연평초등학교 졸업앨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설화채록 프로젝트는 서해 5도 및 용진군 내 도서지역에 남아있는 설화들을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록하여 설화집으로 출판하는 사업이다. 경기만 다도해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에 기초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예술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기획이 현장답사를 주요 방법론으로 삼는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와 접목된 것이다. 한편 현장 답사과정에서 알게 된 연평초등학교의 딱한 사정, 즉 졸업앨범 제작업체들이 수

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진군 내 섬 학교의 졸업앨범 제작을 거부한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들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연평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13명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촬영을 진행한 작가들의 노력은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남겼다.

사전 기획답사와 작품제작으로 2012년 상반기를 바쁘게 보낸 후 마침내 인천아트플랫폼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무대로 전시회의 막이 올랐다. 1회 때보다 전체적인 기획과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품 작품의 수준도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주요 답사지인 ‘백령도’, ‘연평도’, ‘강화, 교동, 인천시내’, ‘황해프로젝트’ 섹션으로 구분된 77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1회 전시를 준비하면서 고향 땅 백령도를 찾은 박충의 작가는 2012년에는 아예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초대 입주작가로 3개월 동안 백령도에 머물며 작품을 제작했다. 또한,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인 신태수는 <평화로운 땅>, <장산곶> 등 백령 8경을 담은 시리즈 작품을 선보여 백령도 자연경관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실증적 사례를 남기기도 했다. 해외작가들의 참여도 이어졌는데, 중국의 조우치, 일본의 이시하라 노리코, 태국의 짜까 판 타나티라난 등이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서해 5도를 작품에 담았다.

전시장소의 확대와 관람객 규모의 증가로 확인된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의 성장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은 바 크며, 향후 전시기획에 대한 충고와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다. 예컨대 시민과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와 특정 역사적 장소에서 펼쳐지는 동시다발적 프로젝트를 주문하는가 하면, ‘평화’에 대한 개념과 전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 시키자는 요구,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나 방문답사를 미리 준비하자는 제안, 그리고 인천이라는 지역적 범주를 넘어 동북아적 관점에서 평화를 사유하는 미술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제언이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의 발전방향으로 제시되었다.

3. 제3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백령도 525,600 시간과의 인터뷰>

2013년 제3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는 지난 2년간의 성과에 힘입어 시간

상으로는 더욱 거시적으로 지역적으로는 보다 미시적으로 서해 5도의 평화를 이야기했다. 전시 타이틀 <백령도 525,600시간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이, 6·25 전쟁 이후 지난 60년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525,600시간의 자장에 묻혀 있는 바다와 섬의 상처,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목소리가 전시기획의 중심축을 형성했다. 현장 답사에 기초하여 작품을 새롭게 제작하고, 이들을 모아 전시와 각종 프로젝트로 이어가는 기획 방법론은 더욱 성숙해졌다. 2013년의 전시기획은 백령도에 집중하며 총 3차례에 걸쳐 현장 답사를 추진했는데, 모두 60명의 예술가들이 최북단 백령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참여 작가 중 일부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백령도 평화예술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백령도 현장에 머물며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백령도 525,600시간과의 인터뷰> 전은 여러 측면에서 앞서 진행한 2년간의 전시를 완결하는 의미가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예산과 전시규모의 확대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에서 5천만 원, 롯데백화점 후원금 3천만 원, 해외문화홍보원 보조비 1천8백만 원 등 총 예산규모 1억 2천만 원으로 전시살림이 꾸려졌다. 참여한 작가와 작품 수도 늘었는데, 시각예술 분야 작가 58명이 약 12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문학 및 비평 분야 작가들도 원고 작성과 대담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특별히 인하대 최원식 교수와 시집 『백령도』의 저자 호인수 신부가 나눈 백령도의 문학적 의미에 대한 대화는 미술전시를 문학적 관점에서 사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2013년 전시의 백미는 다양한 장소를 전시장으로 꾸민 기획에서 찾을 수 있다.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한 1차 전시는 백령도에서 펼쳐졌는데, 백령도의 대피소 4곳(1호, 3~5호, 7호, 9호)이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심청각, 백령병원, 백령성당, 그리고 예술레지던시 공간인 옛 성당숙소 등의 내부 공간과 하늬해변 등의 백령도 야외 공간도 전시장으로 변신했다. 2차 전시는 8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과 송도 신도시의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에서 열렸으며, 해외문화홍보원의 도움으로 한영수교 130주년 기념전시 <어느 노병의 이야기>를 런던 아시아하우스에서 7월 8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는 등 국제교류도 한층 넓어졌다.



제3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에 대한 미술평단의 주목과 관심도 대단했다. 재일교포 3세 작가 김수미는 백령도 현장에서 초등학생 100여 명과 버려진 형철 조각으로 장미꽃 조화를 만드는 <로즈 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작업을 통해 해병대 관사 철조망을 장미꽃으로 물들이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야외에서 작업을 진행한 노기훈 작가는 철조망과 군사시설로 빼곡히 둘러싸인 백령도 해변에 벽돌을 엉성하게 쌓아 만든 <1차 저지선>이라는 다소 해학적인 설치 작품으로 주목 받았다. 한편 안소현 작가의 가족

사진 프로젝트와 류성환 작가의 독거노인 인터뷰 프로젝트는 긴장의 섬 백령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편적 일상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여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3년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를 끝으로 3년간의 인큐베이팅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그간의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를 평가하면서 운영위원회와 지역 문화예술계는 향후 독립적인 조직으로 전환해 인천을 대표하는 예술프로젝트로 발전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격년제 등 비엔날레 방식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끊임없는 대결과 대치의 긴장 상황이 반복되던 해양도시 인천이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를 계기로 남북은 물론 동아시아를 향한 평화의 발신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II.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 & <내가 사는 섬>

인천문화재단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원은 2006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미술관이나 공연장의 닫힌 공간을 벗어나 도시와 섬을 무대로 펼쳐지는 공공예술은 일상의 공간을 예술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예술을 매개로 삶의 공동체를 찾아가는 실험적 예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삶의 장소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간의 프로젝트는 주로 전시장 밖의 공공장소에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특정 지역의 이미지 전환을 시도한 랜드아트, 초등학교의 교문을 바꾸는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 등 예술이 가진 공공성의 의미에 주목한 사업이 다수였다. 이러한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인천 연안의 섬으로 전파되어 안착하기까지 인천문화재단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원체계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화했다.

1. 공공미술의 새로운 시작

2006년 첫 선을 보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종래의 공모지원 방식에서 탈피한 ‘기획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지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선정 심의 후에 컨설팅과 비평가를 매칭하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한 점,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금을 사업의 추진과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방식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장소와 공간 중심의 프로젝트를 우선 발굴하고자 의도했던 첫 공모사업에 12건의 프로젝트가 응모하여 3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는 등 공공미술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월초등학교의 교문을 예술 프로젝트의 장소 대상으로 선택한 <해바라기 정원>은 그동안 분리와 단절의 상징이었던 교문을 아이들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교문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평단의 주목에 힘입어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는 인천 소재 8개 초등학교로 확대될 수 있었다. 또한, 인천의 도시공간 곳곳을 이동하며 체류하는 <도시유목 2> 프로젝트는 장소에 얽힌 가치를 발굴하고 직접 체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적 이슈를 생산했으며, <홍예문 프로젝트>는 인천 개항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홍예문과 자유공원 일대에

서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 지역의 시각환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장소지정 공모를 도입한 2007년은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총 5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지원기관인 인천문화재단과 프로젝트 기획자인 예술가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인천시청역사 프로젝트를 위해 인천문화재단은 유휴공간을 사전에 섭외하고 장소의 활용에 따른 행정지원을 담당했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해 온 유봉상은 스테인리스 못을 활용하여 7미터 크기의 대규모 작품을 에스컬레이터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시청역사에 설치했으며, 이화정의 <나의 지구를 지켜줘>는 시청역사의 유휴공간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이자 공공도서관으로 디자인했다.

2008년 공공미술 지원사업은 <아름다운 교문만들기> 지원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진행했다.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교문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수 실행한 지역 예술가의 제안을 인천문화재단이 공모사업으로 발전시킨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마침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문화경영 도입 차원에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기부함에 따라, 송림초등학교와 만석초등학교의 교문이 멋진 예술작품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2.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인천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안한 ‘시도기획지원사업’으로 출발했다.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발맞춰, 중앙은 예산확보를 담당하고 지역은 사업의 기획과 진행을 책임지는 협력구조가 실현된 첫 사례이기도 한 지역협력형사업을 통해 그동안 인천에서 진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성과와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시스템이 인천연안의 도서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루, 예술과 만나다’라는 부제를 달고 출발한 2009년 첫해에는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 섬에서의 프로젝트 수행이 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준비기간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정을 통해서야 학습할 수 있

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대에 못 미치는 프로젝트 기획의 완성도가 심의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이듬해인 2010년에는 공공미술 분야에 경험과 성과가 있는 단체들을 사전에 섭외하여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제안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사업 대상지인 대이작도 현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프로젝트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보완되었고, 마침내 <꽃, 꿈, 섬 대이작도>가 최종 선정되어 실행에 옮겨졌다.

사회적 기업 티팟과 대이작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꽃, 꿈, 섬 대이작도> 프로젝트는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 먼저 <큰마을꽃 프로젝트>는 기존의 화단이나 텃밭에 특색 있는 꽃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민박집마다 고유한 정서와 느낌을 담아낸 마당정원을 조성했다. <울울히섬 프로젝트>는 섬의 이야기를 주민의 시각에서 공공예술작품으로 구현했다. 주민이 지은 가사에 곡을 붙여 대이작도를 상징하는 노래 음반을 제작한다거나, 대이작도에 서식하는 말과 염소, 뱀 등의 나무모형을 부아산 정상에 설치하는 작업, 그리고 마을의 그림지도를 마을과 선착장 입구에 설치한 결과물이 선보였다. <춤춤 꿈 프로젝트>는 주민 워크숍을 통해 마을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이 원하는 마을의 미래상을 설계하여 책으로 출판한 사업으로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위한 일종의 안내 매뉴얼을 개발한 것이다.

<표 1> 2009~2011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 선정 내역

연도	선정프로젝트	선정주체	사업장소
2009	바람이 분다, 돛대를 올리자	문화생성연구소	신도
	섬, 달빛 꿈을 머금다	spectra&artoff	자월도
	섬 things-섬, 그곳에 있는 것들	공공미술놀이터	덕적도
2010	꽃, 꿈, 섬 대이작도	티팟	대이작도
2011	소무의도 그림수필, 섬집을 존중하다	기억과 새로움의 풍경	소무의도
	장봉1리 문화예술마을형성 프로젝트	거리의 미술	장봉도
	춤추는 섬 무의도	무의도 아트예술단	무의도
	섬마을 꽃들의 발자국	퍼블릭아트 달무리개	주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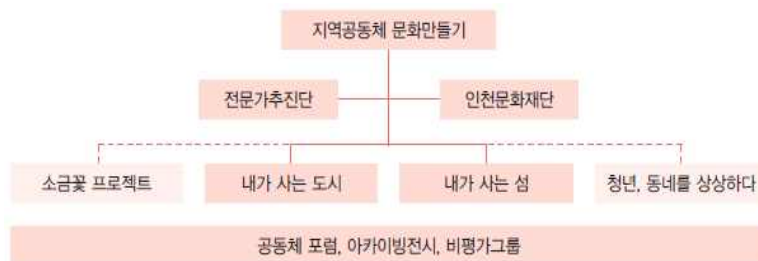
3.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내가 사는 섬>

2012년 인천문화재단은 그동안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아름다운 교문

만들기, 그리고 섬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재점검하고, 마을과 주민 그리고 공동체가 우선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유사 사업의 행정절차를 통일하고 사업 간의 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라는 타이틀로 그간의 사업들을 통폐합했다. 해양도시 인천의 특성상 도심과 섬의 물리적 구분은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방법론도 유지되었다. 다만 지원사업의 체계를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공모와 기획지원의 병행, 다년지원 제도의 도입, 그리고 컨설팅과 비평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또한, 지역 내외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추진단에 전체 진행을 조율토록 권한을 위임했는데, 공모계획 검토부터 개방형 프레젠테이션 심사, 컨설팅과 중간평가, 성과도출과 결과보고회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단이 관장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12년 <내가 사는 섬> 지원영역에서는 총 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이 중 장봉도와 소무의도의 프로그램은 2011년 섬공공예술프로젝트로 추진된 바 있으며, 다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2년차 사업을 이어갔다. <장봉1리 문화예술 만들기>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방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벽화, 시화, 타일그림 부착작업과 함께 섬을 주제로 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작은 무의도 그림수필, 생각하는 섬>은 마을의 색과 공간 정리, 기념벽화 그리기, 그리고 주민 스스로 삶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다. 이외에 신규 선정사업인 강화도의 <야곡 문화예술마을 학교>는 마을 어른들이 마을입구부터 경로당까지의 진입로를 숲대와 자화상으로 꾸미는 프로그램으로, 아차도의 <섬의 노래>는 마을 주민의 이야기와 삶의 소리를 녹음하여 라디오 방송과 음반 제작으로, 그리고 세어도의 <우물안 가득>은 신진기획자들이 우물을 소재로 섬의 가치를 새롭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운영구조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추진단과 인천문화재단의 협업구조는 물론, 예술가와 마을주민들의 파트너십 또한 더욱 힘을 발휘했다. 이러한 경험에 힘입어 2013년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소금꽃 프로젝트’와 ‘청년, 동네를 상상하다’ 영역을 새롭게 신설했다. ‘소금꽃 프로젝트’는 지역기반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총 사업비 중 70%의 펀딩이 성공하면 재단이 30%의 사업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고, ‘청년, 동네를 상상하다’는 신진예술가와 청년활동가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진입을 유도하고자 교육워크숍과 기획안 컨설팅을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도시는 물론 인천 연안의 도서지역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문화활동가 풀이 확대되었고, 지원체계도 더욱 완결적으로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프로젝트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아카이빙도 중요하게 고려되어 개별 프로젝트 자료집은 물론, 인천문화재단 차원에서 지원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결과자료집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은 2014년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인천 강화도에서는 2014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통합워크숍이 열렸다. <문갑도 날개달기>, <열우물! 두레박이 필요해>, <경계에서 관계로, 우현 프로젝트>, <속닥속닥 대청> 팀 등이 섬과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예술가와 마을 주민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아트를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워크숍에는 컨설팅단 전문가 7명이 모두 참석해 프로젝트팀의 고민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예술적 행위보다는 주민의 시선을 우선하자라든가, 의도는 좋으나 실질적인 계획이 부재하다는 등의 지적과 평가 등 향후 프로젝트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찾기 위한 토론이 밤새 이어지기도 했다. 특별히 도서지역인 문갑도와 대청도를 사업 대상지로 선택한 프로젝트팀은 향후 인천의 섬에서 지속 가능한 예술프로젝트를 모델링하라는 숙제를 부여받기도 했다.



Ⅲ. 나가며 : 예술은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탐색은 계속되어야

인천의 섬 지역에서 펼쳐진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와 공공예술프로젝트는 그동안 문화소외계층으로 분류되던 도서지역 주민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주민의 욕망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단순 공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과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업방식이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 중심의 문화정책은 예술가와 시민을 창작자와 소비자로 단순 구분하던 종래의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한다. 시민이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예술창작의 주체일 수 있다는 근대적 발상이 우리 사회에도 뿌리내리기 시작한 덕분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인천의 도서지역에서 펼쳐진 예술 프로젝트는 섬을 단순히 사업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섬 주민을 예술소비의 주체로 사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섬이라는 삶의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데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주민의 삶이 예술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예술가와 문화기획자의 도움을 빌려 탐색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이 중심이요, 예술가와 지원기관은 서포터즈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확산한다면,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 풍요로운 삶의 공동체가 인천의 섬 곳곳에서 다양하게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사례발표 1

도시와 문화정책의 파트너십,
싱가포르

이정민(도시계획학 박사)

도시와 문화정책의 파트너십, 싱가포르

이정민 1)

I. 시작하면서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도시국가다. 북쪽으로 조호르 해협과 남쪽의 싱가포르 해협을 두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분리되어 있다. 싱가포르 국토면적은 716.1km²로 매우 작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지도 위의 빨간 점(red dot)이란 애칭을 가지고 있다.

영국이 점령하기 전까지 해적 소굴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는 2013년 말 현재 인구 540만 명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1위 스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쟁력 2위까지 올라섰다. 이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리완유 전 총리의 자서전 『내가 걸어온 일류국가의 길(From third world to first)』에는 왜 싱가포르가 세계도시화의 길을 가야만 했는가가 잘 나타나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당시 인종 간 갈등, 이념 대립,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불법 파업과 폭력시위사태에 폭동까지 빈발하여 싱가포르 자체가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었다. 이 때 30대였던 리완유는 일류국가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높이 들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국민 앞에 우뚝 섰다.

리완유가 제시한 일류국가 즉 세계도시는 바로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꿈이자 희망이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도시환경이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를 더럽힐 수 있는 껌과 담배를 법률로 금지하였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부단

1) 도시계획박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멜버른 대학의 Han(2005) 교수는 「도시계획관점에서의 싱가포르 세계도시화」라는 논문을 통해,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세계도시화에는 효율적인 정부주도형 시장경제시스템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다 도심재개발,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개발과 같은 물리적인 도시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관련 제도와 기관 또한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싱가포르로 외국인 유입이 많아지면서, 우월한 지리적 여건이나 쾌적한 주거환경만으로는 도시의 매력을 더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문화 또한 철저하게 국가가 계획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왜 싱가포르는 문화예술 정책을 표방하였는가? 과연 싱가포르에는 문화적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가? 문화예술정책과 도시정책과의 연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싱가포르의 문화예술 정책이 제주도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문화예술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도시정책과의 연계성을 싱가포르 장기계획인 콘셉트 플랜(Concept Plan)에 반영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싱가포르 문화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에스플러네이드, 원-노스(One-North), 레드닷 뮤지엄, 복합리조트, 네이션 파티(nation party) 등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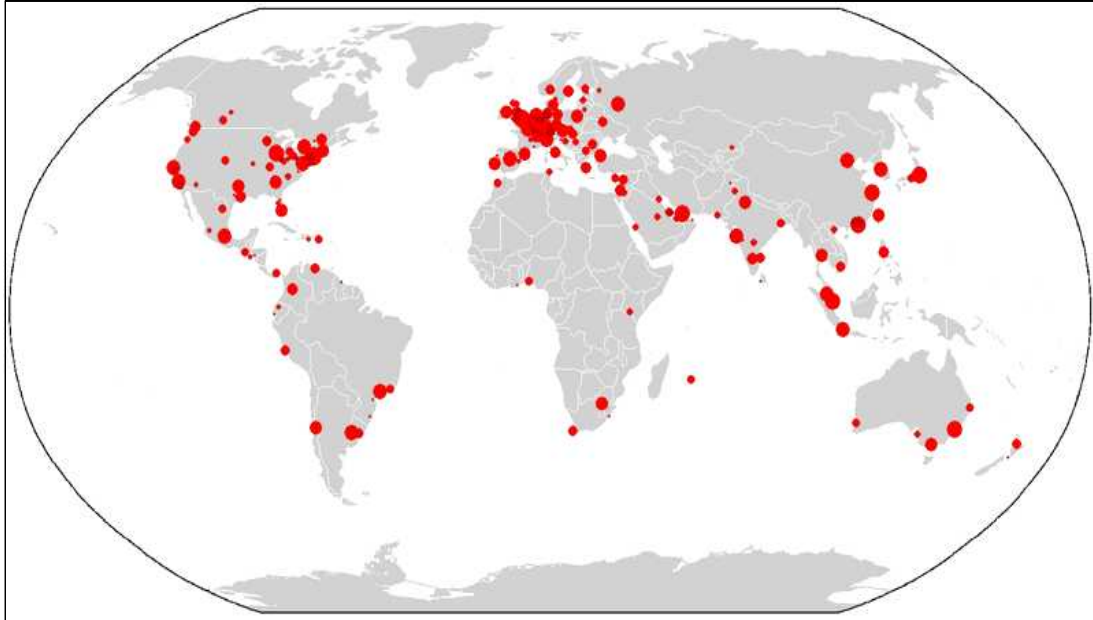
II. 문화정책과 도시정책과의 관계

1. 문화정책과 창조도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도시관리 개념이 바로 창조도시다. 창조도시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정책이 시민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세계화와 세계도시연구센터(Globalization and World Cities Network)는 매년 세계도시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세계도시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가장 세계화된 도시를 의미하는 알파++에는 런던과 뉴욕이 포함되고, 이를 보완하는 알파+ 도시에는 홍콩, 싱가포르, 파리, 도쿄, 두바이 등이며, 서울은 이보다도 낮은 알파 등급에 속해 있다.

<그림 1> 세계도시 위치도



세계도시로 인정받는 도시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모두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물리적, 비물리적 측면에서 도시문화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이른바 ‘문화도시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이 글에서 주된 논의가 이루어질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창조산업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을 통해 영국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터 성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런던은 ‘런던문화수도 계획’을 중심으로 ① 런던을 세계 문화도시로 진흥하고, ② 런던의 성공을 위한 창조성을 진흥하며, ③ 런던 시민의 문화적 접근성 확보, ④ 런던 전역에서 문화로부터 가치를 획득하는 네 가지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영화 등 창조산업이 GDP의 7.3%를 차지하고, 180만 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여, 금융산업과 맞먹는 규모로 발전하였다(이은형, 방정혜, 2009).

미국은 영국과 달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보다 도시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이다. 뉴욕은 ① 도시산업 측면에서 문화에

술이 뉴욕의 핵심 산업으로 매년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② 인적 자산 측면에서도 뉴욕은 창조적인 인구가 밀집되는 곳이며, ③ 문화 소비 측면에서 뉴욕의 문화적 기반이 두텁다는 특징이 있다. 뉴욕의 이러한 문화적 잠재력을 어떻게 보전·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뉴욕 문화정책의 핵심이다. 특히 뉴욕은 1992년부터 시작된 맨해튼 남동부지역 재생프로젝트에 의해 빈민가였던 곳이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극장, 쇼핑, 음식문화 등을 갖춘 독특한 문화의 거리로 재생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장운배, 2010).

일본의 동경은 애니메이션 산업 등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창의인력과 문화적 수요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창의 인재들이 동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시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롯본기 아트트라이앵글과 도쿄 원더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인작가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롯본기 힐즈는 시대와 국적을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거리로 변모하였다. 도쿄 도심의 부흥은 예술도양이 척박하다는 도쿄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이은형, 방정혜, 2009).

세계도시는 아니지만 스페인의 빌바오 또한 문화예술 전략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유럽의 다른 도시들은 유치하지 않으려 했던 미국문화의 상징인 구겐하임미술관을 빌바오가 유치하면서, 쇠락해가던 도시를 재생시켰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1989년 수립된 ‘전망 2005(Perspectiva del 2005)’ 계획에서 출발하였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인 메트로폴리 30(Metropoli 30)이 구성되었다. 빌바오는 첫째, 발전에 필요한 물리적 선제조건을 갖추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노력했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매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둘째이며, 마지막은 도시권의 문화적 가치관을 바꾸는 단계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구겐하임은 이 계획의 하나일 뿐이고, 구겐하임이 성공하면서, 그 주변지역인 아반도이바라(Abandoibarra)를 고급주택지로 개발하면서 생긴 개발이익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Charles Landley, 2009).

2. 싱가포르의 문화정책의 변화

1) 국가주도의 문화정책

세계도시로 인정받는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문화에 근거한 창조도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또한 예외가 아니다. 싱가포르가 한 세대 만에 절망적인 식민지 빈곤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국가발전 전략에 근거하여 모든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문화정책 또한 예외 없이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Peter Hall, 1998).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중심도시로서 1980년 말까지 첨단기술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 분야에만 주력하였다. 싱가포르에는 이주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외에는 문화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었다. 1980년대부터 국가가 예술과 전통 등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지만, 모든 것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와 직결되었다.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일정 규모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화가 싹트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2) 제조업에서 문화산업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 싱가포르 제조업의 경쟁력은 아시아권에서 선두를 유지하였지만, 과학기술에 근거한 제조업 정책은 한국,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이루어지 못했다. 제조업과 금융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부흥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1989년 문화예술에 관한 자문회의(Advisory Committee on Culture and Arts)가 문화예술 부흥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정책을 강화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싱가포르 업그레이드를 주장했고,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연시설의 건립을 권고했다.

3) 싱가포르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태동

1997년 아시아권 금융위기로 싱가포르의 문화예술 정책 또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지난 10년 동안 집행되어 온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에서 소프트웨어를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존 전략분야인 교육, 도시계획, 과학기술에 문화와 예술을 조화시키는 프로젝트가 바로 1999년 발표된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 미디어, 디자인, 그리고 IT 및 소

소프트웨어 산업을 통해 도시문화 정책을 집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정책과 다른 점이라면, 이전의 정책이 하드웨어 시설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외부지향적 정책이었다면, 싱가포르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역 예술공동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내부지향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의사결정 구조 또한 하향식 방식에서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주민은 문화예술의 주체에서 생산의 주체로 변화되었다(Lee, 2003).

4) 유교적 가치관의 변화

싱가포르는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국가다.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국가가 언론과 국민을 통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문화예술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 상하이, 홍콩, 바르셀로나, 오스틴, 댈러스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결론은 ‘인재 전쟁’, ‘북적거림’과 같은 도시의 활기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아마도 싱가포르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창조계급의 태동(The Rise of Creative Class, 2002)에 제시된 보헤미안 지수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Kwok Kian-Woon, 2007). 이 때문인지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전 세계 최대 게이 파티인 ‘네이션 파티(Nation Party)’와 카지노를 허용하게 된다.

3. 도시계획과 문화예술의 접목

1)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체계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콘셉트 플랜(Concept Plan)과 마스터 플랜(Master Plan)으로 구성되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부지판매 프로그램과 개발규제 계획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콘셉트 플랜은 우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유사한 계획이지만, 싱가포르 계획법(Planning Act)에 규정된 계획은 아니다.

이 계획에서는 싱가포르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할 것,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다루어진다. 하지만 마스터 플랜은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필지별 상세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콘셉트 플랜은 1971년 최초의 계획이 수립된 이후 1991년, 2001년,

2011년 총 4번 수립되었으며, 마스터 플랜은 1958년 처음 수립 이후 5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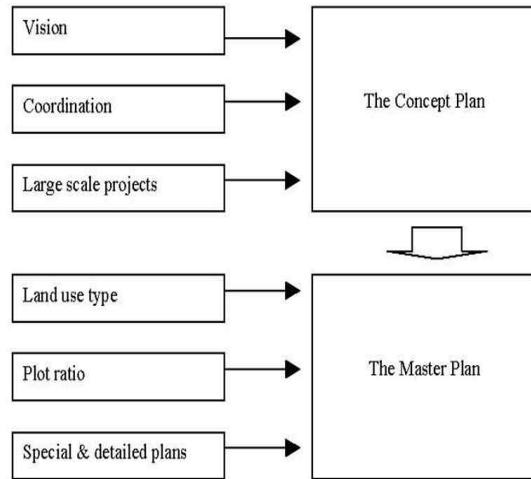
2) Concept Plan 1991 : Living the Next Lap

그렇다면 싱가포르 도시계획 속에서 문화예술정책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971년 콘셉트플랜은 주로 싱가포르 공간구조 발전방향을 순환형(Ring)으로 설정하고 창이국제공항, 도시간선철도(MRT: Mass Rapid Transit), 고속도로 체계와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을 마련했으며, 중심지구는 싱가포르가 국제금융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무역관련 기능을 유치하는 것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1991년 콘셉트 플랜은 “Living the Next Lap”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애칭이 이 계획의 비전이다. 즉, 다음 세대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계획인 것이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문화와 예술이 하나의 부문별 계획으로 다루었다. 이 계획에서 “문화와 예술이란 국가의 정체성과 영혼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였고, 지속가능한 싱가포르를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이 내용은 1989년 문화예술에 관한 자문회의(Advisory Committee on Culture and Arts)의 보고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국가유산으로 남아 있는 곳은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계획하였다. 싱가포르인들의 창조적인 본능을 깨우고, 세계적인 연주자와 공연을 싱가포르로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싱가포르 박물관 지구를

<그림 2> 도시계획 체계



<그림 3> 계획 및 실행 체계



예술의 중심지로 계획하고, 공연예술을 위해 마리나 베이(Marina Bay)에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칼랑 극장, 빅토리아 극장, 빅토리아 콘서트홀은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심시가지와 주변 지역에서 비어 있는 건축물은 예술가들을 위한 리허설과 작업공간으로 제공토록 계획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싱가포르 미술관(1996), 아시아 문명 박물관(1997), 싱가포르 영화위원회(1998), 다목적 공연센터인 에스플러네이드(Esplanade, 2002) 등이 건립되었고, 외곽지역에 개발된 뉴타운 센터에는 소규모 공연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3) Concept Plan 2001

이 계획은 21세기 세계도시로 번영하는 싱가포르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도시 비전으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역동적인 도시, 싱가포르 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고, 쉽게 인지될 수 있는 독특한 도시, 활력과 재미·오락거리가 있는 즐거운 도시로 설정되었다.

이전 계획과 다른 점이라면 문화예술을 통한 싱가포르의 정체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Concept Plan 1991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보했다면, 이 계획을 통해서도 기존 유휴지를 활용하여 스포츠와 예술 관련 시설들을 확충했고,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했다. 난양(Nanyang)예술아카데미와 같은 기관이 설립되었고, 공원에서 연극과 희극이 공연되었으며, 주거지역의 근린센터를 복합건물로 계획하면서 일부 공간을 드라마, 공연 예술, 소규모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1999년에 발표된 싱가포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계획에서도 문화 및 예술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바로 화이트 존(white zone)이라는 새로운 용도지역이 도입된 것이다. 이 지역은 궁극적으로 “직장-주거-교육-여가” 환경을 통합하는 지역을 의미하지만, 이 계획에 따라 수립된 마스터 플랜에서는 마리나 베이 샌즈와 겐팅센토사월드가 화이트존으로 지정되었다.

4) Concept Pla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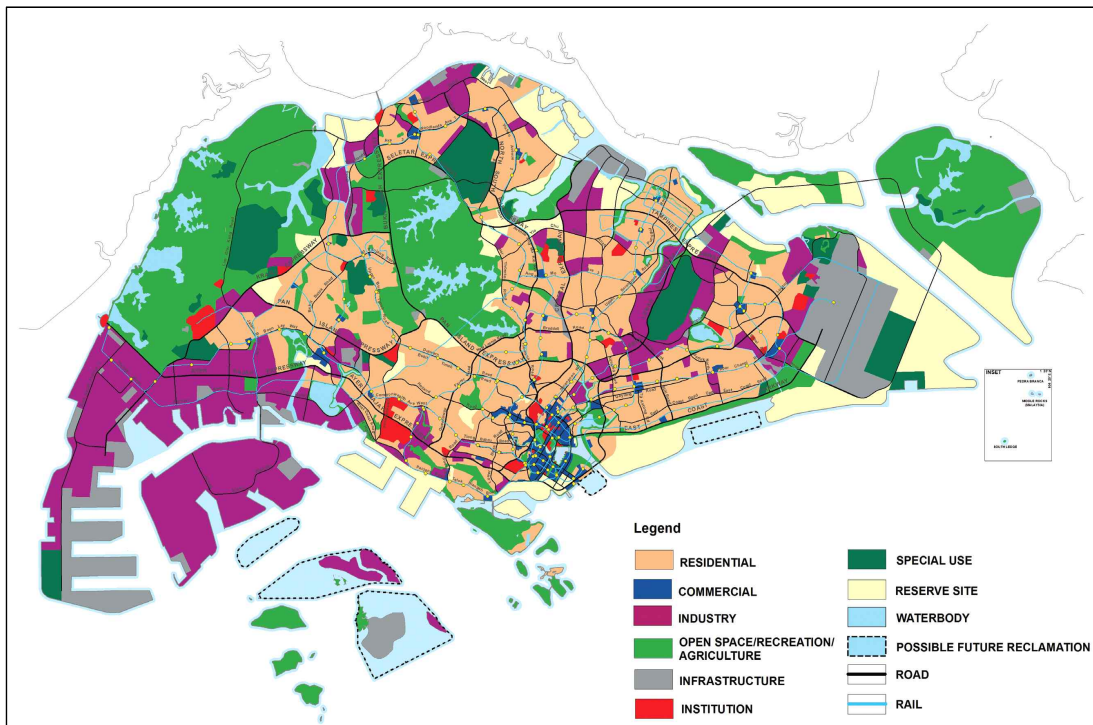
이 계획의 비전은 ‘모든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다른 국가들 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 제시된 문화와 스포츠 시설 관련 계획

을 보면, 모든 싱가포르 국민들이 다양하고 생동력 있는 예술, 문화,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시정지구에 기존 문화유산을 활용한 국가예술 갤러리(The National Art Gallery)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2014년까지 전천후 스포츠 허브(sports hub)를 조성하는데,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55,000석 규모의 전천후 체육관과 쇼핑몰, 푸드 코트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하계 청소년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스포츠시설과는 다르다. 기존 시설이 엘리트 체육을 위한 시설이라면, 올해 완공될 시설은 일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용도로 개발을 한 것이다. 이는 1999년 발표된 싱가포르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갱신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One-North 계획 또한 구체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그림 4> Concept Plan 2011



Ⅲ. 싱가포르 사례

1. 싱가포르 문화의 아이콘 에스플러네이드

에스플러네이드는 콘셉트 플랜 1991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다민족 국가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싱가포르 예술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리나 베이 인근 6ha 규모의 워터프론트에 개발되었다. 원래 이곳은 싱가포르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푸드 코트가 있던 곳이다.

<그림 5> Concept Plan 1991에 제시된 공연장 모델



에스플러네이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벤치마킹하여 개발하였는데, 관람석은 오페라 하우스보다 적지만,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다민족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①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공할 공간, ② 전위적인 예술가들이 마음껏 공연할 수 있는 공간, ③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처음으로 접하게 될 공간, ④ 중장년층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계층과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 에스플러네이드에는 1,600석 규모의 콘서트홀, 2,000석 규모의 극장, 200

여 석 규모의 리사이틀 스튜디오, 소극장, 리허설 스튜디오 등이 있으며, 에스플러네이드 쇼핑센터, 공연예술 전용 도서관인 Library@Esplanade가 만들어져 있다. 이는 전 세계 콘서트홀이나 공연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도였다.

콘서트홀과 극장을 싸고 있는 두 개의 돔은 동남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 두리안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공기흐름을 최대한 활용하여 냉방 에너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로 건축되었다.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2년 에스플러네이드 개관 이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의 회수가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음악 공연의 경우 2003년 1,889회에서 2007년 2,093회로 늘었으며, 무용 공연은 498회에서 916회로, 연극 공연은 1,898회에서 2,434회로 늘었고, 기타 공연 역시 369회에서 1,006회로 늘어났다.

<사진 1> 에스플러네이드 전경



싱가포르 정부에 의하면, 총 6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입하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못지않은 시설을 건설함에 따라 문화와 예술분야의 고용창출은 2003

년 20,677명, 2007년 21,094명으로 4년 동안 2% 증가했고, 부가가치 창출액은 2003년 8억 1,805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2007년 11억 3,446만 달러로 약 3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싱가포르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유료공연 참여 행태를 보면, 2004년 110만 명에서 2008년 153만 8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관객 대부분이 내국인이나 동남아권 국민들로 한정된 것이 한계라는 평가가 있다(The Esplanade Co. Ltd, 2009).

창조도시 선구자인 찰스 랜들리는 에스플러네이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였다(Charles Landley, 2006).

에스플러네이드에는 ‘하늘의 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못지않은 상징물을 세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중략) 이곳의 최첨단 음향시설과 견줄만한 공연장은 전 세계에서 다섯 군데 밖에 없다. 에스플러네이드의 외관을 둘러싼 두 돔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즐기는 과일인 두리안의 가시 돋친 모습을 본뜬 것이다. (중략) 싱가포르 최초의 공연 예술 도서관과 예술 관련 쇼핑센터가 들어서 있다. 스스로를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선구자’라 일컫는다.

(전략) 그릇을 만든다고 해서 저절로 창조성이 담기지는 않는다. 특히 당국이 주도하고 대부분의 창조성이 시작되는 민간부문과 연계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하다. (중략) 큰 건물을 하나 짓는 대신 작은 프로젝트 50개를 진행하면 어떨까? 어느 쪽이 더 많은 창조적 잠재력을 낳을까?

싱가포르 자체적인 평가 즉, 경제적 효과나 수치 위주의 성과와는 달리, 찰스 랜들리는 한 마디로 국가주도의 하드웨어 위주의 문화예술 정책을 꼬집으면서 창조성이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할 때 생겨나는 것임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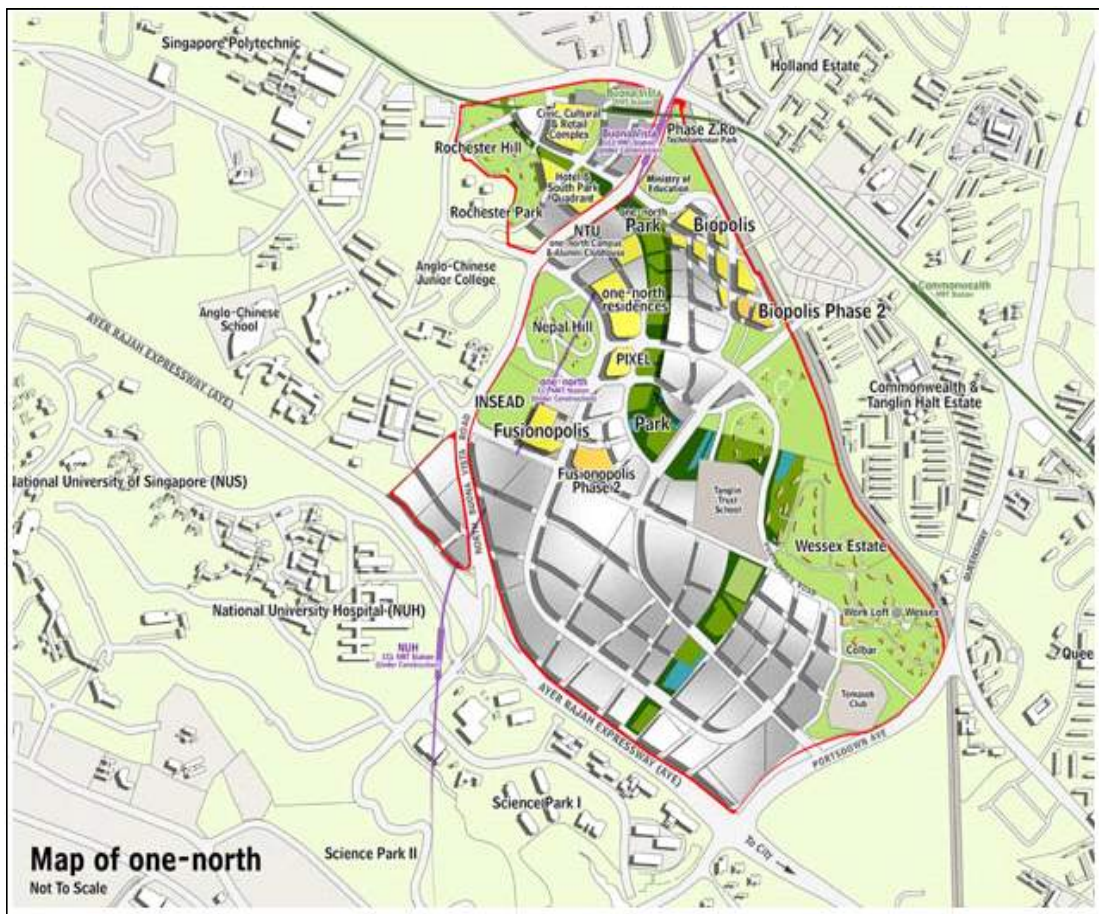
2. One-North : 싱가포르 창조산업의 상징

One-North는 싱가포르가 북위 1°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얻은 별칭이다. 이 사업은 1991년에 수립된 국가기술계획(National Technology Plan)에 반영되어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싱가포르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One-North 마스터플랜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파크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Jaha Hadid)가 담당하였다.

주룽도시공사(JTC: Jurong Town Corporation)가 21세기 들어 최초로 개발한 최첨단 지식기반 비즈니스 파크다. 15년에서 20년 이내에 원-노스를 ‘비전과 영감이 뛰어난 장소’ 즉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창조하고, 활력이 넘치면서 신경제에 대한 가장 창조적인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개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6> 원-노스 지도



원-노스가 입지한 지역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국립대학교 부속 병원, 싱가포르 첨단과학단지에서 도보로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면적 200ha 규모의 이 단지의 핵심은 바이오폴리스(생명공학단지)와 퓨저노폴리스

(정보산업단지) 또는 미디어 단지이다. 이 밖에도 이 단지에는 벤처기업 육성 단지인 페이스지로(Phase Z.Ro)가 있고, 식민지 시대에 영국군이 사용했던 관사와 막사 42동을 창의교육센터와 카페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노스 내 녹지와 공원은 ‘기술 개발과 업무로 바쁜 가운데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조용히 명상’할 수 있도록 녹지, 아름드리나무, 꼬부랑길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① 원-노스의 이용 가능한 자원과 관련된 실제공간 (real space), ② 사람, 조직, 세계를 연결하는 공동체와 관련된 가상공간 (virtual space), ③ 인간의 상상력과 노력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에 기여하는 상상력의 공간(imaginative space) 등 세 가지 공간을 창출했다. 이 세 공간에서 ‘지식노동자, 주민, 학생, 예술가, 기업가, 벤처 자본가, 창조계층’이 살며, 일하고, 여가를 즐기며, 학습할 수 있는 공동체로 조성되었다.

<사진 2> 원-노스의 바이오폴리스와 퓨저노폴리스



원-노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폴리스는 생물학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공공·민간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생명공학 및 유전자 연구소인 바이오인포매틱스 게놈연구소(the Bioinformatics Genome Institutes),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laxo Smith Kline), 분자 한의학 연구소인 모네쿨라 애큐핑처(Molecular Acupuncture) 존 홉킨스 생물학 연구소(John Hopkins' Deivision of Biomedical Science)와 같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연구기관 및 제약회사까지 수용하였다. 세계 최초로 줄기 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Han, 2005).

퓨저노폴리스는 '고급인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바이오 폴리스와 달리 퓨저노폴리스에는 외국 기업이나 연구소가 입지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산업(마이크로 전자공학, 고성능 연산,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퓨저노폴리스의 성공을 위하여 2009년 디자인과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MIT와 협업하는 싱가포르 과학기술대학(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을 설립하였다. 이는 퓨저노폴리스 혹은 미디어폴리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여기에 외국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장학금과 재정지원, 영주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6년간 근무한다는 조건 아래 1인당 6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투자하기도 한다(Charles Landley,2006).

싱가포르의 미디어 전략은 디자인을 첨단과학과 디자인의 접목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원-노스에서는 한류나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미하다.

3. 레드닷 뮤지엄 싱가포르

싱가포르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예술위원회(Nation Arts Council)는 '싱가포르를 "글로벌 문화도시"로 만들어 싱가포르 국민의 창의성이 꽃피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하나가 싱가포르를 디자인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고, 독일의 레드닷 상업성과 문화성이 싱가포르 문화 예술도시 프로젝트와 맞아 떨어지면서 아시아 최초로 레드닷 뮤지엄이 2005년 싱가포르에 입점하게 되었다.

독일의 레드닷 뮤지엄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로 잘 알려진 곳이다. 독일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에센 지방의 석탄 산업 센터 건물을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매년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가 이루어진다. 시상식은 축제처럼 진행된다. 레드닷 뮤지엄 싱가포르 또한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진 3> 독일 에센 주 레드닷 뮤지엄



<사진 4> 싱가포르 레드닷 뮤지엄



하지만 레드닷 디자인 공모전은 우리나라 유수의 공모전과는 달리 건당 50에서 150 싱가포르 달러의 출품비를, 최종 심사후보로 선정된 경우 120에서 280 싱가포르 달러의 프리젠테이션 수수료를, 150 싱가포르 달러의 시제품 수거와 모형 수수료를, 최소 550에서 2100 싱가포르 달러의 수상자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올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경우 기업 부문의 경우 1,816개 업체가 4,815개의 제품을 출품했다. 디자인 콘셉트 부문 등 다른 분야를 합치면 2013년 기준으로 70여 개국에서 15,000여 팀이 참가했다. 출품비용 수수료만으로도 한 해에 150만 싱가포르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레드닷이라는 공모전의 유명세를 이용한 하나의 비즈니스다. 물론 레드닷에서 입상한 신인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로서의 출세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출품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품을 제출하고 있다.

레드닷 뮤지엄 전시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다. 레드닷 공모전 수상작과 입선작을 전시하고 있는 이 뮤지엄의 전시장 입장료는 1인당 8 싱가포르 달러이다. 건물의 나머지 부분의 경우 1층에는 대부분 카페와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에서 4층까지는 대부분 디자인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부강'이라는 한국식당이 이곳에 입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싱가포르 레드닷 뮤지엄의 수준은 알 만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곳을 방문하였던 한국디자이너들의 평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다만, 싱가포르가 디자인을 매개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었다는 점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4. 복합리조트와 문화예술

1) 도입배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권 신흥도시들의 성장으로 싱가포르는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하면서 세계도시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복합리조트를 도입하였다. 복합리조트는 호텔, 식당, 쇼핑시설, 극장, 박물관, 테마파크 등과 같은 모든 시설을 하나의 리조트에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리조트 면적의 일정 비율에 대해 카지노를 허용하는 개념이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금기시 했던 도박산업을 복합리조트라는 형태로 도입하

기 위해 2002년부터 3년 동안의 공론화과정을 거쳤다(Lee, 2005). 카지노에 따른 득과 실, 특히 카지노가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모든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도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동시에 ‘도박중독 위험자’의 파악, 자금의 감독, 카지노 허용 제한, 신용 관리, 자발적 손실제한, 범죄예방 조치, 카지노 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조 등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싱가포르는 관광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창조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싱가포르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영향 때문인지, 싱가포르 정부는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창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문화시설들이 복합리조트의 주요 시설 중 하나로 포함되기를 원했다. 이는 2005년 5월 18일 리셴룽 총리가 복합리조트 도입을 결정한 후 이루어진 국회 연설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뉴욕, 파리, 런던, 홍콩, 상하이 등과 비교하면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컨셉트를 공모했는데, 사업자들은 ‘카지노에 대한 최저 세율 보장’ 때문인지 사업자들이 미술관 설립과 운영을 위해 후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고, 하라스 엔터테인먼트(Harrah's Entertainment) 사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바탕으로 프랑스 몽피두 센터와 제휴하여 싱가포르 현지에 미술관 지점을 설립’하겠다고 합의하기도 했다(Kwok Kian-Woon, 2007). 이는 전적으로 빌바오의 구겐하임 효과 때문이었다. 결국 이들 업체들은 탈락했지만, 이러한 개념은 그대로 복합리조트에 반영되었다.

2)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싱가포르에는 비즈니스형 복합리조트와 패밀리형 복합리조트 2개소가 있다. 마리나 베이 샌즈(MBS)는 비즈니스형이고,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패밀리형이다. 그나마 문화시설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된 곳은 MBS다.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은 MBS를 싱가포르의 새로운 랜드마크와 문화예술, MICE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안하여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다. MBS 설계는 이스라엘 출신의 유명한 건축가인 모셰 사프디(Moshe Safdie)가 담당했다. 그의 설계의 특징은 곡선을 드라마틱하게 활용하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창조적인 설계에 있다. 캐나다 몬트

리올에 있는 해비타트(Habitat) 67이나 인도 펀잡에 있는 칼사 헤리티지 메모리얼(Khalsa Heritage Memorial)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MBS 또한 그렇다.

MBS 전체 시설 면적 571,783㎡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7.3%이다. 원래 쇼핑시설과 전시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던 크리스털 파비론이 루이비통(Louis Vuitton)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 면적비율은 카지노 면적 비율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MBS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와 같은 복합리조트를 두 2010년 상반기에 개장하였다. 2006년 이후 주춤하던 싱가포르 관광객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2009년 급감하였지만, 2010년 복합리조트 효과에 따라 관광객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관광객 증감률은 2012년과 비슷하지만, 2013년 증감률은 7.38%로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다.

<그림 7> MBS 조감도(Safdie Architects 홈페이지(<http://www.msafdie.com>))



1. 호텔 : 객실수 2560실(연면적 302,171㎡)
2. 샌즈 스카이 파크(1,396㎡: 건물 3개 동을 연결한 200미터 규모의 옥상공원(전망대, 레스토랑, 수영장 등)
3. 카지노(15,000㎡)
4. 쇼핑센터(74,322㎡)
5. 샌즈 엑스포 및 컨벤션센터(131,000㎡)
6. 아트사이언스 박물관(15,000㎡)
7. 극장(21,980㎡)
8. 크리스털 파비론(5,914㎡, 현재는 루이비통 매장으로 활용중)
9. 이벤트 플라자(5,000㎡)

MBS의 경우에는 매년 2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2011년 The Economist 보도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두 개의 복합리조트에서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납부한 세금이 4억 2천만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MBS의 수익의 77%가 카지노에서, 나머지 23%가 호텔, 식음료, 판매시설 및 MICE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George Tanasijevich, 2011).

<표 1> 2005~2013년 싱가포르 관광객 추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관광객(만명)	894	975	1,028	1,012	968	1,164	1,300	1,450	1,557
증감률(%)		9.06	5.44	-1.56	-4.35	20.25	11.68	11.54	7.38

출처 : 싱가포르 통계청. 통계연보, 2014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와 싱가포르의 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복합리조트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The Economist지는 싱가포르 국민들은 이를 행운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차세대 정치인인 “니콜 씨아(Nicole Seah)”는 외형적인 성장으로 인해 물가와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외국의 유능한 인재 영입 정책으로 인해 싱가포르 국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찰스 랜들리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에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리조트 투자자에게만 기회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싱가포르가 창조도시가 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혹평하면서, 싱가포르는 카지노에서 파생하는 효과에 대해 날이 갈수록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싱가포르는 창의성을 키우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국가 정책이 창의성이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실패는 피하고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길만 모색하기 때문에 창의도시 가능성의 폭을 줄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실용주의는 복합리조트처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욕심을 낳아 결국 국가적 가치와 이상향에 잠재된 큰 성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5. 네이션 파티(Nation Party)

싱가포르 공공 엔터테인먼트 허가기관(Public Entertainment Licencing Unit)은 2001년부터 2004년간 동성애자(lesbian, gay), 성전환자(trans-gender), 양성애자(bisexual)들을 위한 파티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싱가포르가 유교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게이문화’에도 관대하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창조도시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파티에 참석하는 이들이 지출하는 ‘핑크 달러(pink dollar)’를 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네이션 파티는 2001년 싱가포르 독립기념일인 2001년 8월 8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파티 장소를 센토사섬으로 한정하였는데, 입장료를 지불하고 파티에 참여한 사람만 1500명을 넘어섰다. 이 행사는 프라이데이닷컴(Fridae.com)이 주관한 행사로 모토롤라나 스바루와 같은 대기업들이 후원하기도 하였다. 행사를 거듭할수록 유료 참여자의 수는 늘었다.

하지만 2004년 12월 2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려던 스노우볼 04(snowball 04)행사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고, 2005년 4월 네이션 파티 05 행사 또한 거절당하면서 게이 공동체는 충격에 빠졌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판단으로 인하여, 학문의 자유나 게이 공동체를 대하는 싱가포르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 워릭(Warwick)대학교는 싱가포르 캠퍼스 설치계획을 철회하였다. 결국 싱가포르를 MIT나 하버드와 같은 최고의 대학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려던 ‘아시아의 보스턴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Charles Landley, 2006).

IV. 제주도에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는 천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이 매우 빈약한 국가에서, 중개무역항과 영국군 주둔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지난 반세기만에 세계에서 경쟁력이 제일 높은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모든 정책이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된 공무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도에게 싱가포르의 세계도시화 전략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정책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시설을 공급한다고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시설이나 분위기가 주민의 창의성과 결합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1. 문화정책과 도시계획의 연계

도시공간관리에 대한 최상위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고, 그 다음 단계가 싱가포르 콘셉트 플랜과 유사한 제주시기본계획이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문화예술과 정책 관련 5대 20개 과제가 방대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문화시설에 대한 총량만 제시되었을 뿐, 어떠한 시설이나 활동이 제주도의 공간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최소한 도시기본계획에는 문화예술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탐라문화광장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문화는 없고, 토목사업만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도시공간관리에 있어서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상위 도시계획인 콘셉트 플랜에 문화예술 관련 계획을 포함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특히 이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도심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할애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단순한 공연장에서 탈피한 에스플러네이드

에스플러네이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만큼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콘서트홀, 공연장, 리사이틀 스튜디오, 소극장, 리허설 스튜디오, 미술관, 쇼핑센터, 공연예술 전용 도서관이 복합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문화예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는 문예예술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 예술의전당을 들 수 있다. 이들 시설의 공통점은 공연장이 주된 시설이라는 점이

다. 특히 서귀포 예술의전당은 공연장에 전시시설을 역지로 포함시키다 보니, 결국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구규모와 공연장의 입지 때문인지, 공연이 없는 날이 많으며 심지어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대공연장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연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최소한 제주도내 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예술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제주도 문화예술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연장보다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예술공간을 주거지역 주변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3. 창의성이 살아 있는 산업단지 조성

원-노스는 창의성이 넘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싱가포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기존 시설을 최대한 존치하면서 창의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영국군이 사용하던 시설을 어린 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주도내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화북공업지역과 토평공업지역, 금릉·대정·구좌농공단지, 그리고 용암해수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밖에 없다. 용암해수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첨단과학단지는 IT, BT 기업위주로 입주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문화예술과 직결된다. 그런데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문화예술이나 디자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도는 없다. 지금 확장계획이 수립 중인데,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관련 시설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복합리조트는 문화예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문화예술의 근간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에 근거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정체성 대부분이 변질되거나 파괴되었다. 그나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주민들이 수입해 온 문화밖에 없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복합리조트다.

앞에서도 서술했지만, 복합리조트의 도입으로 싱가포르는 세수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원래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 복합리조트 투자자들 또한 원래 계획보다 빨리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복합리조트 추진 과정에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자 했음에도 그 효과는 미약하다. 또한 외형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싱가포르 내 빈부격차 심화, 외국 전문인력의 수입으로 인한 국민의 일자리 부족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지역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주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가 포함되면서 제주도정은 싱가포르 수준의 감독기구와 카지노세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러한 대규모 카지노가 제주도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외부인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싱가포르가 네이션 파티를 허용한 것은 창의도시로 인정받기 위한 가식적인 조치였다. 처음에는 허용했다가 나중에 게이공동체를 거부함으로써, 싱가포르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외부에 대한 개방성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성이 없이는 문화의 지속성이나 창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없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웬당’이라 불리는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통해 뭉치면서, 외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지켜졌을지 모르지만, 제주도 문화는 그 무대가 좁을 수밖에 없었다. 폐쇄성과 배타성을 탈피하지 않고는 제주도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례로, 지금 귀농, 귀촌이라는 형태로 예술가들이 제주도 원도심과 농촌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폐가를 카페나 전시관과 같은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원도심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SNS를 통해 도내외 젊은층이

교류하는 공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들 공간의 문화적 잠재력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V. 마치면서

문화는 억지로 만들 수 없다. 문화는 지역 정체성의 역사적 흔적이다. 문화가 있어야 창의적인 도시가 되며, 창의성은 역동성과 개방성이 있어야 유지된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면서 사람,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만 신경 썼을 뿐, 우리의 정체성은 간과하였다. 외형적 성장 위주의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제주도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싱가포르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문화정책을 변화시킨 것은 본받을 만하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가치관이나 정체성과 대치되는 문제, 외형적 성장으로 인한 각종 문제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안이다.

위정자들이나 전문가들과는 달리 제주도민들은 카지노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례를 검토해보면 도민들의 결정이 옳은 것일 수 있다. 도민들은 카지노를 확대하지 않고 제주도의 정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체성과 문화가 없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또한 성공할 수 없다. 과연 제주도에 건설될 예정인 복합리조트가 제주도의 정체성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은형, 방정혜. 싱가포르의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사례 연구 :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4호, 2009
- 장윤배. *도시재생기법의 적용사례와 도입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0
- 조아라, 라도삼. 세계 주요도시의 문화전략과 서울 컬처노믹스 연구.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제9권 제4호, 2008

- Charles Landley(최지영 역). *The Art of City-Making(크리에이티브 시티메이킹)*. 도서출판역사넷, 2009
-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2014*, Ministry of Trade & Industry. Singapore, 2014
- Han Sun Sheng. Global Global city making in Singapore: a real estate perspective. *Progress in Planning* vol.64, 2005
- <http://www.jtc.gov.sg/RealEstateSolutions/one-north/Pages/default.aspx>
- <http://www.esplanade.com>
- <http://www.msafdie.com>
- <http://www.museum.red-dot.sg/>
- <http://www.wikipedia.org>
- Kwok Kian-Woon. 싱가포르, 문화허브 창조도시.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 *문화도시조성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2007
- Lee Hsien Loong. Proposal to Development Integrated Resorts. STATEMENT BY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ON INTEGRATED RESORT ON MONDAY, 18 APRIL 2005 AT PARLIAMENT HOUSE
- Lee Wai Kin. *Creating a "City fo Art": Evaluating Singapore's Vision of Becoming a Renaissance City*. Master thesis a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3
- MICA(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Arts). *Renaissance City Plan III*. MICA. Singapore, 2008
- Peter Hall. *Cities in Civilization*. New York. Pantheon, 1998
- Richard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2002
- The Esplanade Ltd.. *Annual Report 03/04*. Singapore, 2004
- The Esplanade Ltd.. *Annual Report 07/08*. Singapore, 2008
-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Concept Plan 1971*. URA. Singapore, 1971
- URA. *Concept Plan 1991 "Living the Next Lap"*. URA. Singapore, 1991
- URA. *Concept Plan 2001 "Towards a Thriving World Class City in the 21st Century"*. URA. Singapore, 2001
- URA. *Concept Plan 2011 "A High Quality Living Environment for all Singaporeans"*. URA. Singapore, 2011

주제발표 1

제주, 마을미술에서
세계 예술섬까지

김해곤(섬아트문화연구소장)

제주, 마을미술에서 세계 예술섬까지

김해곤 1)

제주는 예술적 영감(靈感)의 산실(産室)

문화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은 오래 전의 이야기다. 예술은 세계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문화와 예술의 열풍은 참으로 대단해서, 과거 자연을 즐기는 ‘관광’ 위주의 여행에서 벗어나, 이제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고 그것을 체험하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다. 나아가 문화시설이나 상품도 정형화된 형식의 틀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여행자들은 진부하고 알맹이 없는 외양보다는, 특색이 있고 교감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만든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오래된 탄광촌에 설치된 영국 게이츠헤드의 「북쪽의 천사」, 중국 베이징의 ‘따산즈 798예술특구’, 일본의 나오시마 섬 등의 성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물사람들에게 신비와 동경의 섬이다. 천혜의 자연경관, 1만 8,000신(神)을 지닌 신화의 고장, 섬이라는 지리성이 만든 독특한 정신문화, 그리고 역사의 상처를 간직한 제주인들의 이야기 등 예술가들의 영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콘텐츠와 인프라가 있다. 곧 다른 도시에 비해 고유한 문화가 풍부하고 이를 뒷받침할 생태환경이 살아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여 문화 르네상스를 만들어내기에 손색이 없다.

1) 섬아트문화연구소장

마을미술, 제주 예술섬 조성의 불씨가 되다

비록 부분적이지만, 제주도는 오래 전부터 공공미술을 시행해 오고 있었다. 2007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 인 시티 (Art in City) 2007’ 기획공모에 이승택(갤러리 하루 대표)이 선정되어 서귀포 걸매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2008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가 공공미술 공모 사업으로 ‘기억의 정원, 두맹이골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와 공공미술추진단이 ‘공공미술 프로젝트-터미널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사업들은 당시 제주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으나, 추가지원 없는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2009년부터 시작된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공미술 사업이다. 지역의 역사·생태·문화가 녹아들어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 미술을 담아내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시행 이후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마을재생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으며, 주민의 향수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잘 반영된 예술작품을 통해 마을이 독창적이고 미적으로 조성되고, 이렇게 잘 가꾸어진 마을은 다시 문화관광 자원이 되어 지역을 활성화시킨다. 곧 ‘마을을 담은’ 미술이 문화 복지 구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공모형식으로 추진되는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11년 마을 전체를 미술마을로 만드는 사업(행복프로젝트)을 추진했는데, 첫 해에 경북 영천이 선정되었고 그 다음해인 2012년에는 서귀포가 선정되었다.

당시 서귀포시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서귀항을 통한 연륙수단의 퇴조와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 중문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지역상권이 쇠락하고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미술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구시가지와 이중섭미술관 등 4,3킬로미터 구간에 이미 조성된 ‘작가의 산책길’로 행복프로젝트에 응모하였다. 이중섭미술관을 비롯한 4개의 미술관, 칠십리시(詩)공원, 천지연폭포·정방폭포 등을 연결하는 ‘작가의 산책길’을 사업대상지로 제안한 것이다. 이는 ‘작가의 산책길’을

활용해 문화적 인프라와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스토리텔링화한 도보탐방프로그램으로서, 서귀포시 구도심을 하나의 거대한 ‘벽 없는 미술관’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의 취지는 「유토피아로(遊土彼我路)」라는 프로젝트명과 주제로 ‘작가의 산책길’에 서귀포의 정체성을 스토리텔링하여 제주도를 예술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제주도의 인문·자연·환경·역사·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적 ‘유토피아로(너와 내가 만나 문화를 이야기하며 노니는 곳)’를 조성하여, 자연이 빛고 사람이 만든 예술작품이 서로 함께 어우러진 장소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작가의 산책길’에 펼쳐진 「유토피아로(遊土彼我路)」의 작품은 총 40점.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일원 4.3킬로미터를 따라 ‘人숲, 人집, 人바다, 人길’이라는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조성하였다. 숲길을 따라 걸으며 제주 숲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고,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서귀포 주민들의 삶의 역사와 희망을 보며, 바다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나고, 길 속에 녹아 있는 문화와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다.

관람객은 샛기정공원에서부터 칠십리시공원, 서귀포구, 천지연로, 자구리해안을 거쳐 소암로, 이중섭거리, 마을미술프로젝트 커뮤니티센터까지 천천히 걸으며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만나고 아트하우스, 아카이브자료관 등을 통해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경험한다. 지붕 없는 거대한 마을미술관을 감상하는 셈이다. ‘人숲’ 권역 12명, ‘人집’ 권역 10명, ‘人바다’ 권역 6명, ‘人길’ 권역 12명 작가가 작품을 설치하였다. (1)

<사진 1> 게와 아이들 : 정미진, 서귀포 자구리해안, 2012



2013년 서귀포시는 ‘마을미술프로젝트-공모2, 기쁨두배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오랫동안 방치해 온 옛 관광극장을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는 사업(프로젝트명-「아트플랫폼」)을 제안하여 극장 1층을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방치되어 있던 지역의 유휴시설물을 업사이클링(up-cycling)하여 이중섭거리에 새로운 문화자원을 만들고 서귀포의 중요한 문화콘텐츠를 구축한 사업이다.

그리고 2014년은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약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4 예술의섬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총 10명(팀)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작가의 산책길’ 위에 추가적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내 작가에 의존해왔던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해외의 유명작가까지 참여하고 있다. 명실공히 세계 예술섬을 표방하는 모토에 걸맞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제주 전역에 다채로운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주도의 예술섬 조성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삼도2동이 추진하는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빈집을 활용한 예술가들의 입주 참여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들은 제주도가 문화예술도시로 한층 다가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또 저지리 예술인마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명한 미술인들이 입도하고, 국내의 주요 화랑들이 제주도에 들어서고 있음은 제주문화 발전에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마을들이 앞다투어 문화마을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예술가들에게 실험예술의 장이 되고 있는 점도 앞으로 주목할 만하다.

국내외 문화도시 우수사례

전 세계는 도시재생이라는 목표 아래 문화예술도시를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만든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이나 미국 시애틀 파이어니어 광장(Pioneer Square) 역사지구, 중국 베이징의 ‘798예

술특구’, 버려진 섬을 예술섬으로 만든 일본의 나오시마프로젝트, 유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탈바꿈한 영국의 게이츠헤드, 국내의 부산 감천동 등이 그 좋은 사례다. 몇 군데를 살펴보겠다.

일본의 나오시마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베네세그룹의 후쿠다케 회장은 “인간의 손에 의해 버려진 섬을 인간의 손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일본의 30년 후의 자원은 예술이다”라고 주창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나오시마 섬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7대 섬’에 선정되는 등 많은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2)

후쿠다케 회장은 앞으로도 30년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2013년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추진된 <제2회 세토우치국제예술제> 는 단 몇 개월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들었고, 행사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경제효과는 무려 1,4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사진 2> 오기시마의 혼(男木島の魂) : 자우메 프란사, 오기시마



영국의 게이츠헤드는 인구 20만 남짓한 도시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다. 조각가 고펠리(Antony Gormley)의 「북쪽의 천사」 라는 작품이 그 시원이 되었다. 거대한 천사를 상징하는 「북쪽의 천사」 는 200년 동안 광부들이 일 해왔던 광산촌에 세워진 높이 22미터, 날개 너비 54미터에 달하는 철제 조형물로, 이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사진 3> 북쪽의 천사 : 앤터니 고클리, 54m x 22m, 게이트헤드, 1998(4)



이어 게이트헤드는 철거비 부담으로 방치해 두었던 제분소 공장을 개조해 ‘발틱 현대미술관’을 지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거대한 애벌레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외관의 최고급 콘서트홀 ‘세이지음악당’을 건설했다. 발틱 현대미술관과 세이지음악당은 매년 23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낳고 있다. 빈민촌이었던 타인 강변에는 최고급 힐튼호텔이 들어서고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여 든다. 현재 게이트헤드는 완벽한 도시재생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3)

부산 사하구 감천동 문화마을은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국내 최고의 공공미술 성공 도시로 꼽을 수 있다.

감천2동과 산복도로는 한국전쟁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의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근·현대사적 흔적과 기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곳은 매우 가파른 산비탈 지형에 주택 수백 가구가 계단식으로 줄지어 형성되어 있고, 골목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으로 촘촘히 조성되었다. 또 세대 안에 화장실조차 없는 불편한 집들이 많다. 지금은 이곳을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부르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많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이곳을 떠나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황량하고 낙후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이후 지속적인 추가사업으로 감천마을은 미술마을의 대표적인 예로 수많은 언론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전 세계 공영방송과 뉴욕타임스, CNN방송 등 소개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유명한 곳이 된 것이다.

<사진 4> Good Morning : 아트인 다 대포, 부산 사하구, 2009



이들 마을미술의 성공 뒤에는 모두 지자체, 기업, 작가, 그리고 주민의 힘이 있었다. 나오시마는 버려진 섬이었지만 후쿠다케 회장은 앞으로도 30년간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고, 또 프로젝트의 주체는 베네세그룹이라는 기업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에 의해 추진된 게이츠헤드의 「북쪽의 천사」는 현재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경우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행정기관, 작가, 주민이 하나가 되어 성공한 사례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수백억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어 지속적으로 도시 업사이클링이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감천마을은 부산의 랜드마크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또한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고, 사하구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었다.

제주 예술섬을 위한 제언

제주도는 관광도시다. 위에서 열거한 도시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많은 문화적 콘텐츠를 지니고 있어, 세계적인 예술섬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예술도시라는 것이 인프라와 콘텐츠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버려진 섬 나오시마를 예술섬을 만든 사례나 유령도

시를 문화도시로 만든 영국의 도시 게이트헤드, 그리고 주민들이 떠나고 쇠퇴해가는 마을을 문화마을로 만든 부산 감천동 사례들의 공통점은 추진 주체의 문화 마인드와 성공시키고자 하는 절실함, 그리고 강력한 실천적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옛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즉,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일지라도 잘 다듬고 정리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흩어진 구슬을 보배로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제주도다.

필자는 미약하지만 ‘제주국제예술섬프로젝트(가칭)’를 위해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국제예술섬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지원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은 각종 비엔날레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는 도시의 마케팅과 도시활성화에 큰 역점을 두고 진행된다. 가장 잘 알려진 광주비엔날레부터 부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그 비용은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기도 한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이자,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로 꼽히기도 한다.

이런 대형급 미술행사는 해외에서 더 많이 개최되는데, 비엔날레 기간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버려진 섬들을 예술섬으로 만들어 3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세토우치국제예술제’는 작년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 입장료만으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엔날레는 전 세계의 작가들이 한곳에 작품을 모아 전시하고, 폐막하면 작품들을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국제예술섬프로젝트는 야외에서 개최되는 특징을 살려 작가들이 작품을 일정한 공간에 설치해두고 떠나는 형식을 취한다면, 행사가 끝나도 작품은 고스란히 남아서 제주도의 재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한다면 정치권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도 도비가 많은 소요되고, 도민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청사진(아트맵)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무엇보다 자연이 보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신이 빛은 예술과 인간이 만든 예술의 공존이 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을 해치지 않고, 쇠락해져가는 원도심과 산업사회의 유산들, 버려지고 방치된 곳(것) 등을 문화적 공간(소재)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 즉, 제주도 고유의 이야기와 콘텐츠가 내재된 곳, 전쟁유적지인 진지동굴과 격납고, 평화문화마을 조성 등을 통한 화해와 치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곳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최대의 장점인 자연의 아름다움이 반영된 생태미술 혹은 환경미술 지향, 오래되고 낡은 것들에 대한 문화적 재생, 그 속에서 마을과 도시를 이해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순기능을 유도하면 제주도만의 독창적인 예술 섬이 만들어질 것이다.

셋째,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역재생과 예술의 절묘한 결합으로 성공하고 있는 일본의 에치코 츠마리 트리엔날레는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대지예술제다. 도쿄에서 2시간 가량 떨어진 산간지역에서 열리는 이 예술축제는 2000년에 마을재생 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약 2,000번의 설명회를 가졌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영국 게이츠헤드의 「북쪽의 천사」를 제작할 당시에도 시민들은 "그 돈을 학교나 병원 짓는 데 쓰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게이츠헤드 시의회는 문화예술을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삼고 착실히 지역발전 전략을 진행시켜 나갔다. (5) 그 결과 지금의 살아있는 게이츠헤드가 된 것이다.

필자도 2012년 서귀포에서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13개월 중 7개월을 민원에 시달렸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향수권 신장에 이익이 되는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어디에나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행정기관, 작가, 주민 사이의 소통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과의 소통은 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을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동체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국제예술섬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다.

<사진 5> 숨-바다 : 서귀포미협, 서귀포시공원 내 유토피아갤러리, 2012



제주의 아트피아(ART+UTOPIA)를 꿈꾸며

예술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공해가 없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주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경제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 지 오래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며 국제화의 시각을 같이 견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가장 제주다운 것을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안목과 마인드가 제주도를 세계의 중심에 둘 수 있게 할 것이다.

제주도가 거대한 인프라와 콘텐츠 위에서 예술가들이 마음껏 재량(才量)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한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현대 관광객들의 관심사와 트렌드(trend)는 자연관광을 넘어 예술관광으로 가고 있다. 제주도가 '자연+예술+역사+인간'이 하나 되는 그런 곳이 되어,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사랑받는 아트피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자료>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도록』, 에이엠아트, 2013, 39쪽
계간지 『지역과 발전 제14호』, 2013, 지역발전 국내 사례(필자, 김해곤)
경북일보 사설 「북쪽의 천사」, 2012.11.16일자(모성은, 한국지역경제 학회장)
북쪽의 천사 <http://cafe.naver.com/linecontra/29083> 이미지 참조
경북일보 사설 「북쪽의 천사」, 2012.11.16일자(모성은, 한국지역경제 학회장)

토론문 1

문화시설 측면에서의
제주문화예술섬 접근

김태일(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문화시설 측면에서의 제주문화예술섬 접근

김태일¹⁾

1. 들어가며

문화란 무엇인가? 민족, 시대 혹은 지역, 개인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상적인 삶에 뿌리내려 시대와 역사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축적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은 정치와 경제, 역사 등 시대와 사회의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내고 있다. 때로는 장소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고, 건축적 양식(형태)이기도 하다. 그래서 ‘건축문화’인 것이며 의미 있는 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 보전하려는 것이다.

프랑스 건축법 1조에 ‘건축은 문화’ 라고 정의되어 있다 한다.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건축을 평당 단가로 환산하는 부동산 가치가 우선이고, 문화적 가치 판단보다는 단순한 법적 논리로 철거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문화가 축적되지 않는 사회인 셈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기반 위에 주민의 삶을 자치적이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문화정책부서가 앞장서서 철거를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문화자원의 축적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탐라문화권사업의 핵심지역 내 근대건축물조차도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문화를 논한 자격이 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가치의 중심은 문화와 환경이다. 21세기에 문화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산업이 중요해지고 있고 문화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으며 문화도시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도시의 문화적 깊이와 생활의 수준

1)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미래사회를 변화시킬 문화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의 석학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교수는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현대사회의 주역을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이라 주장하였다. 그의 말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2. 접근방안

2-1.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복지 커뮤니티 육성사업

: 문화공간 및 생활의 보편화

1960년대 지역사회 쇠퇴의 주요한 원인은 지역의 공동성 상실에 있다. 주민의 연대감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설이나 구민회관 등은 매개공간으로서 고전적인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였다. 그 후 지역사회 상황이 변화되면서 인구구성, 주택이나 지역시설의 노후화 등의 변화, 지역사회의 불안정화에 대한 동적 관리 형태로서 복지커뮤니티 형성이론의 전개 및 구체적 실천이 요구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생활양식이나 생활의식의 변화, 생활환경 악화 등은 지역사회의 쇠퇴를 불러왔다. 사회복지, 복지행정, 도시사회학 등 학문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방법이 모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안으로 복지와 문화활동을 주체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즉 문화와 복지활동이 융합, 접목된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이 진전되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문화복지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이념의 보편화보다도 지역 계획적 맥락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다원화를 위해 주택, 주민의 자발적 활동조직, 지역시설 등에 의한 문화복지공동체 형성 가능성과 그 성립조건들을 지역사회의 환경에 입각하여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시설의 개조·활용 및 지역시설과의 연계정비가 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2. 다세대교류를 위한 소규모 복합문화시설 사업 : 문화의 대중화

최근 우리나라도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보편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생활의 환경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환경은 지역 내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택이나 시설 제공,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사회생활 유도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게 하는, 지역 내 자립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여기에 문화적 요소를 접목시켜 문화복지 환경을 확대 조성해 나가는 것도 초고령화사회화에 직면한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적극 수용하는 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삶의 질적 개선 즉, 청소년을 비롯하여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교류를 이룰 수 있는 환경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서 다세대 교류 거점으로서의 「소규모 복합문화시설」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들 복지서비스의 제공, 사회적 문화활동 참가, 자립생활 지원 등의 과제는 개개인의 생활 기반인 지역사회 조건에 맞추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기본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1)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2) 신체기능의 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구조(Universal Design housing)의 제공
- (3) 주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간병(간호)서비스가 부가되어 있을 것
- (4) 복지 및 문화서비스와의 연계
- (5) 지방자치제, 반상회와 같은 지역주민협의회,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의 강화
- (6) 지방자치제, 지역주민협의회들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예를 들면, 생활협동조합에 의한 지역복지활동의 전개 등)

연계정비의 필요성과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1) 고령자 주택과 복지시설의 공급을 확충하는 것
- (2)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지역 내 복지 및 문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와 문화 복지활동거점(공간적 배려)을 제공하는 것

3. 맺으며

구(舊)제주대학교 본관, 피난민주택, 남제주군청사, 카사텔아구아, 구(舊)제주시청사. 보전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었거나 철거 위기에 직면한 건축물들이다. 2012년 제주 건축계의 가장 큰 이슈는 카사텔 아구아의 철거였고,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작업 (2003년), 탐라문화권발전 기본계획(2008년), 제주목관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011년)등 효율적인 근대문화유산 활용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제주도 문화정책의 난맥,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지킴이로서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지식인과 관련단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토론문 2

실험적 공공예술로 접근하는
예술섬(도시) 디자인

이정희(문화기획자, 꽃삽컴퍼니 대표)

실험적 공공예술로 접근하는 예술섬(도시) 디자인

이정희¹⁾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문화도시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할 때, 실험적 공공예술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오늘날 세계의 도시들은 건설→건축→상징조형물→공공미술→공공예술의 차원으로 문화도시디자인에 집중하고 있다. 즉 물리적 공간에 기초하는 하드웨어로부터 시작하여 비물리적 공간을 껴안는 ‘콘텐츠가 결합된 하드웨어’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문화 창출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의 모든 도시는 이와 같은 미래적 도시 창출에 대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도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미 근대적 도시 디자인 개념을 확립한 서구 유럽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되는 실천적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험적 공공예술이란 어떤 의미인가?

보편적으로 ‘실험예술(Experimental Arts)’이란 20세기 미술의 특징인 아방가르드의 특성을 견지한 예술 유형이다. 트렌드화된 예술의 유형을 담보하지 않은 채 예술 본연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의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 예술적 실험을 지속하는 유형들의 통칭이다. 즉 시장주의나 대중주의와 깊이 관여하지 않은 채 순수한 예술의 장에서 전문예술인들이 실험적 모색으로 실행하는 예술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 예술 영역안의 ‘실험예술(Experimental Arts)’에 덧붙여 최근에는 시민 혹은 대중들과 교류하는 ‘공공예술(Public Arts)’의 차원까지 다수의 대중들을 껴안고 가고 있다. 다만 여기서 실험예술이 담보하는 공공성이란 모든 이를 예술 소비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분포되는 예술 향유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술의 민주화(Démocratisation de l'Art & Democra-tization of Art)’를 의미한다.

가령 실험예술을 대표하는 퍼포먼스(행위예술)의 예술표현은 대체로 신체

1) 문화기획자, 꽃삼컴퍼니 대표

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보여주는 라이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매트릭스를 지닌 기존의 공연예술과는 다른 양상을 지닌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공간의 제약 없이 즉흥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의 반응을 일으키며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관객과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난 2014년 10월에 있었던 ‘2014제주국제실험예술제(JIEAF)(10.24-29, 서귀포일대)’의 프로그램들을 주목해 볼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형식들, 지역민의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좁은 골목길, 재래시장, 감귤 밭 등 삶의 현장에서 호흡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통해 상호관계 속에서 작품을 구현하는 형식은 실험적 공공예술의 소통행위라는 측면에서 강조할 만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예술이 삶의 사유방식을 새롭게 표현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라면 결국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더없이 진솔한 최고의 라이브 퍼포먼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예술제의 주제 "Life is Art"가 예술의 경계를 구별하지 않는 또 다른 전위의 소통으로 이어진 셈이다.

전위예술가들의 본성은 새로움에 대한 추구에 있다. 예술가들로 하여금 예술의 경계 끝에 서서 예술과 예술 아닌 것에 대해 ‘실험’을 하고 그림으로써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새로운 지역을 탐사하게 만든다. 이들을 가리켜 ‘선택된 소수selected minority’라고 부를 수 있다면, 사회적 전망과 관련하여 그들에겐 중요한 사명이 부여된다. 창조력을 통해 사회를 개조하고 대중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그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전위주의자들은 때로 ‘초인’ 또는 ‘프로메테우스적인 모험가’ 등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도널드 커스핏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창조력을 통하여 늘 그렇고 그런 일상에 젖어있는 평범한 대중에게 삶의 고귀한 감정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지각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모세이며 또한 횡불과 같은 존재로 비쳐진다.”¹⁾

전위적인 예술가들은 ‘확장과 소통’이라는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아름다움’에 대한 삶의 추구를 실천하고자 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험적 공공예술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만 하다. 첫째로, 실험적 공공예술의 실제적 양상에 있어 다양한 차원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고민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1) DONALD KUSPIT, <The Cult of the Avant-garde Arti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2.

방식,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소통 이벤트, 문화도시 디자인의 예술가 주체로 시민들을 육성하는 방식, 도시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데 일조하는 컬처노믹스 방식 등 다양한 실제적 방법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다차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실험적 공공예술의 문화도시 디자인의 궁극적 목표 지점은 창작 주체를 전문예술가로부터 시민예술가로 이양하는 작업을 통해 문화도시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전문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디자인과는 다른, 예술의 생산과 소비의 민주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또 다른 주요한 과제이다.

셋째로, 실험적 공공예술을 통해서 문화도시 디자인의 미래적 향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면 네트워크 작업은 필수적이다. 실험적 공공예술의 다양한 양상들을 세밀히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세계 문화도시 디자인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효율적인 방식에는 개별 연구보다는 네트워크 시스템 속에서 진행되는 공동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험적 공공예술을 표방하는 예술 공동체들에게 문화도시 디자인의 목적 외에도 자생적인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차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네트워킹은 매우 유효한 작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예술섬에 대한 기대를 월스트리트 저널 2013년 올해의 혁신가상을 수상했던 패트릭 킨머스의 대화로 옮겨본다.

“사람들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이 한순간 멈추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경험, 그들의 지각과 인지를 바꿔놓는 일이 일어나야 해요.. 결국 아름다움이란,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으며 이것이 포인트이죠. 깨달음의 순간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무대 위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바가 아닌, 그것이 담고 있는 암유(暗喻)와 상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반응이란 생각이다.

<참고문헌>

「행위예술의 이론과 현장」 윤진섭 지음

「예술도시 생성 프로젝트 퍼포먼스 아트 플랫폼 인 서울」 한국실험예술정신 편저, (필자 김성호 95, 97, 99쪽)

「은유(Metaphnor):문화적 예술적 표현방식」 황두